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n.com
 Dia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코클리, 소수민족 유권자에 관심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서
 언어와 색깔, 문화 상관없이
 정부혜택 받을 권리
 진보적 색채 드러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매사추세츠 주지사 민주당 후보 마사 코클리는 주지사 후보 중 유일하게 소수민족 언론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가지며 소수민족 유권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 28일 도체스터 소재 미국서비스노조 사무실(SEIU 1199)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클리는 한국, 중국, 브라질, 아이티, 아일랜드 등 다양한 소수민족 언론이 참가한 가운데 이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공약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클리 후보는 “언어와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조기 아동교육, 의료복지,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혜택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 라고 강조하며



소수민족 언론사들이 모인 기자회견에서 선거 공약을 설명하는 코클리 (사진 = 유대인기자)

상대적으로 미국사회에서 소외된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교육, 의료, 복지법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진보적 성향을 띠는 보스톤글로브(Boston Globe)가 이례적으로 공화

당 후보를 지지하는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보스톤코리아의 질문에 코클리 후보는 “매년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신문의 영향을 받는다. 전혀 놀라지도 실망하지도 않은 것은 결국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 이라며 보스톤글

▶▶2면으로 계속

11월 2일 서머타임 해제
 이번 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따라서 토요일 저녁 잠들기 전에 시계를 한 시간 미리 뒤로 돌려 놓아야 시간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과의 시간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바뀌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MIT 여학생 6명중 1명 성폭행 당해

전교생 설문 대학내 만연한 성폭행 실태 드러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IT 여학생 6명중 한 명은 대학재학 시절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381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약 17%의 MIT 대학재학 여학생들은 힘과 육체적 위협, 또는 과음 등으로 인사 불성일 때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정부가 예측했던 이전 수치와 거의 흡사한 결과다. 정부가 지원한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약 19%의 응답자가 성폭행의 희생자로 드러났었다.

29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또한 전체 35%의 응답자도 성희롱,

강간, 성추행, 그리고 기타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 등 일종의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이 신체접촉, 키스, 오럴섹스 시도, 오럴섹스, 삽입 시도, 삽입 등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물었다.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 상당수는 공식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분의 2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힘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공식적인 기관에는 5%만 보고한 것으로 응답했다.

성폭행은 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피해학생들 절반은 술에 만취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콘도

- Brookline, MA, 방 2, 학 2, 1523 sq., \$725,000
- BU, Coolidge Corner에서 도보거리
- 햇빛 잘드는 실내, 벽난로, 풀바이 칩셋이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장애

서버회사 하드디스크 손실로 29일 새벽부터 서비스 정지
6월 25일자로 마지막 백업, 상당기간 자료 손실 입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서버 회사의 하드드라이브 손상으로 인해 지난 29일 새벽부터 일시 중단됐다. 현재 보스톤코리아는 빠른 시일 내에 웹사이트를 복구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보스톤코리아 웹 담당 팀은 백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백업이 가능한 마지막 자료는 6월 25일자로 약 4개월치의 뉴스 및 각종 정보자료의 유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는 “이와 같은 오류 발생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 고 전했다.

현재의 복구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1일 저녁 8시 임시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는 이 시점부터 이용 가능하다.

복구 이후에도 손실 자료부분에 대해 보충해야 하는 추가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시판 이용자들은 자신이 포스팅한 글이 사라졌을 경우 다시 올려야 한다.

특히 포인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스톤 코리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빠른 시일안에 문의해야 한다. 보스톤 코리아는 카드회사의 자료와 대조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 마지막으로 결제한 시점의 포인트로 환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포인트 환원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사무실 (617-254-4654 혹은 bostonkorean@hotmail.com)에 문의하면 된다.

포인트 외 다른 제안이나 게시판 사용 등에 대한 의견도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개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보스톤 코리아 측은 밝혔다.

dyoo9146@bostonkorea.com

마사 코클리, 소수민족 투표 기대 걸어

▶▶1면에 이어서

로브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에둘러 답변했다. 보스톤글로브는 27일자 사설을 통해 찰리 베이커 후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한 아이티 언론사는 “18세 미만까지만 적용되는 위탁보호(Foster Care) 시스템에 의해 매년 수많은 청소년들이 방치되는데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이들의 상당수가 그렇다” 며 이에 대한 코클리의 방안을 요구했다. 코클리는 “18살이 된 아이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뒤늦은 수습”이라며 “위탁보호 시스템이 만료하기 전 소수민족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복지혜택이 보장되어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민자들의 취업난에 대한 또 다른 지적에 코클리는 실력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 취업비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이나 의료,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에게 취업 비자를 보다 쉽게 제공하므로



마사 코클리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서 연설을 전하는 힐러리



마사 코클리, 소수민족 언론사와 기자회견을 가진 첫 주지사 후보

이들의 정착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코클리는 마지막으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이민자 사회를 외면하지 않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11월 4일에 있을 선거에 대해 각 언론에서

최대限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 많은 이민자들이 선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 중간선거는 오는 11월 4일 화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펴 Iron Perm
-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매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매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디자인의 주인공 알고보니 보스턴 출신 조경가 김미경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느끼는 미국과 한국의 두 문화를 디자인에 담아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유다인 기자 = 서울 시민들의 습터로 탈바꿈해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끄는 청계천은 보스턴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조경가가 디자인한 작품이다.

도시 조경가이자 환경 예술가인 김미경 씨가 고안한 청계천 디자인에는 남북한 통일의 염원이 담겨있다. 그녀는 청계천이 흐르는 길목에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나타냈다. 물이 여러 곳에서 흘러나와 하나로 모이는 것은 한국의 여러 지역이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상징하며 기울어진 디딤돌은 강으로 흐르는 서울 시민들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국계 미국인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국적인 정서가 묻어나는 조경 작품이다.

김미경 조경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그녀는 “조경가로서 초기에 디자인했던 작품들은 주로 한국에서 맡은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두 문화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을 많이 구상한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어 “가장 의미 있었던 작품들은 한인 고객들로부터 제의 받은 것들이 많다”며 조경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는 한인들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다.

건축가의 자질로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꼽은 김미경 조경가는 “건축 디자인이라면 건축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자인하는 작품은 그 지정된 공간의 역사와 문화, 사람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녀가 최근 가장 관심 있어하는 조경은 도시 속 치유의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정원이나 공원 같은 공간을 사용해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에서 건축을 공부한 그녀에게 보스턴은 “집 같은 곳”이라고 전했다. 처음 스튜디오를 연 곳도,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



현재 보스턴에서 활동중인 청계천 조경가 김미경 리게 된 곳도 보스턴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녀는 프루덴셜 타워(Prudential Tower)의 옥상 정원과 Hancock 타워(Hancock Tower)의 옥상 테라스, 보스턴 어린이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의 입구 디자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한인 미술전시회

동양의 문화 조망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유다인 기자 = 장순임 작가의 미술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노블 앤 그리노우 스쿨(Noble and Greenough School) 포스터 갤러리(Foster Gallery)에서 열린다.

동양문화를 주 소재로 작품을 그리는 장 작가의 이번 전시는 미국에서 동양문화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주로 다룬다. 특별히 세월호 문제를 다룬 드로잉 설치 작업도 전시된다.

장 작가는 아트아디아 어워드(Artadia Awards, 2012) 뉴욕 현대시각예술 공모전(Contemporary visual art competition)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지난 9월과 10월 노블 앤 그리노우 스쿨에서 제공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Artist in Residence Program)에 참가한 바 있다.

전시회 일정

일시: 2014년 10월 28일~12월 12일

장소: 노블 앤 그리노우 스쿨(Noble and Greenough School) 포스터 갤러리, 10 Campus Dr, Dedham, MA 02026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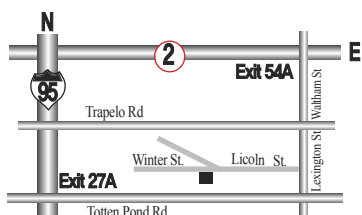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뉴햄프셔한인회, 회관건립 기금조성 만찬

한인회관 건립 기금의
가용액수는 \$51,143
이날 만찬 행사에만
\$3,237.14의 기금 마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뉴햄프셔한인회(회장 박선우)가 한인회관건립 기금조성 만찬 및 경과보고 행사를 지난 25일 토요일 뉴햄프셔 감리교회(목사 어성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단체장과 지역 한인들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2년 전 만찬 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한 바 있어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2007년부터 8년째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기금을 모아왔다. 한인회의 오랜 꿈인 회관건립에 대해 이날 박선우 회장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모인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선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나누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인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몇몇이 꾸는 꿈



지난 25일 열린 뉴햄프셔 한인회관 기금조성 만찬에 50여명의 지역 한인이 참석했다

은 꿈으로만 끝나지만 다같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회관건립이 지역 한인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는 “의미 있는 일을 다같이 꿈꾸면 협력할 수 있다”며 “반드시 열매를 맺기 바란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만찬에 앞서 회관건립 기금 현황보고가 이어졌다. 2007년부터 모아온 한인회관 건립 기금의 가용액

수는 \$51,143이며 이날 만찬 행사에만 \$3,237.14의 기금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우 태권도 수련생 가족인 마이어스(Meyers) 내외가 절도 있는 품세와 격차 시범을 선보였고 이어 마누 리치(Manu Ritchie) 학생이 피아노 곡을 연주했다. 특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에 맞춰 무용을 선보인 전 국립발레단 단원 이여름 발레리나의 공연은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dyoo9146@bostonkorea.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로드풍류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26일 일요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에서 주최한 로드풍류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통 연주단 아우름(대표 송영숙)과 뉴욕취타대(교수 이춘승), 그리고 버클리 재즈 뮤지션(대표 최진호)이 합동 무대를 선보였다.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진 “이스트 미츠 웨스트(East Meets West)” 공연과 심청가 판소리는 관중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온 가족과 함께 공연에 참석한 박영찬 씨는 “전통음악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합동 연주를 들으며 우리음악은 세계 어느 음악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짧고 쾌기 있는 국악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동문 회장은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우리 국악의 새로운 시도들을 지역사회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행사의 소감을 마무리했다.

이어 이 회장은 행사를 후원한 보스톤 총영사관(엄성준 총영사),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 시민협회(회장 이경해), 브라운 학생회(회장 김대현), 하버드 치대(John Chang)와 도움을 준 왕혜숙 교수, KISA, 모니카리 이사, 강순 이사, 홍치선 이사, 박민정 서기 등 많은 손길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진 로드풍류 음악회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취장암 말기 최형철 씨 돕는다 기금마련 골프대회 및 저녁 모임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전신마비 부인을 17년 동안 병간호하다 취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최형철 씨를 위해 보스톤의 한인들이 모금활동에 나섰다.

K씨는 최형철 씨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모금 방안에 대해 고심하던 중 오는 11월 2일 일요일 해버힐(Haverhill) 소재 크리스탈 레이크 골프 클럽(Crystal Lake Golf Club)에서 기금마련 골프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K씨는 “일기예보에 따르면

당일 날씨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골프대회를 생략하고 기금모금을 위한 저녁 만찬으로 대체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K씨는 골프대회나 만찬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기부자가 있는 사람은 성금을 보내면 최씨에게 전달하겠다고 지역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했다.

성금 모금에 대한 문의는 978-884-2194로 하거나 최씨 주소(Choi, H.C, 50 Memorial Road 18C, Somerville,

MA 02145)로 직접 전달하면 된다.

최형철 씨의 이야기는 보스톤코리아에서 지난 10월 10일자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도요타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부인 최혜연 씨를 17년동안 뒷바라지한 최형철 씨는 지난 9월 매스 제너럴 호스피탈(MGH)에서 취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추적 60분에도 방영된 바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참전용사 및 노인회 감사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 간사 황우성)에서 11월 8일 토요일 참전용사 및 한미 노인회 감사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

노스 앤도버 소재의 국제 선교회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초대 만찬과 무료 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만찬은 정옥경 여성위원장이, 무료 진료 서비스는 전 민주평통 회장 정정욱 박사와 이길자 박사가 담당하며 행사 진행은 박영찬 의료복지 위원장이 맡게 된다.

김성혁 회장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과 대한민국 건설과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회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며 “많은 한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국제 선교회, 57 Peters Street, N. Andover, MA 01854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명판 헌정식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25일 토요일 로드아일랜드 주 청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명판 헌정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챕터(Chapter) I, II, III 커맨더스(Commanders)를 비롯한 현, 전직 정관계 인사들과 가족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행사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팔순이 넘은 참전용사들은 “한

국전 참전용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직도 한국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이 있다” 며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기념식에 임했다.

기념식 연설은 잭 리드(Jack Reed) 상원의원과 링컨 샤피(Lincoln D. Chafee) 주지사, 케빈 맥브라이드(Kevin McBride) 소장, 이동문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장이 순서대로 전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허브웨이 자전거, 보스톤·캠브리지 12월까지 운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길거리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허브웨이(Hubway)가 보스톤과 캠브리지 지역에서 12월까지 연장 운행을 실시한다.

지난해 캠브리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겨울철 운행중단 기간을 맞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브웨이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보스톤 지역도 11월 말 땡스기빙 시즌을 기점으로 허브웨이 운행을 중단하고 이듬해 4월 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올해는 보스톤 지역도 캠브리지와

더불어 12월까지 연장 운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브룩라인과 서머빌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운행중단 기간이 적용된다.

허브웨이 마케팅 매니저인 벤지 칸터(Benji Kantor)는 겨울철 운행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며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회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시스템 운행에 관한 주의사항을 보낼 예정” 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겨울철 허브웨이 운행에 따른 안전문제가 가장 큰 우려로 제기된다. 하버드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겨울에 자전거를 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다” 며 “많은 학생들이 12월부터는 자전거 대신 셔틀을 이용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허브웨이 측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브웨이 디스패치 오피스(Dispatch Office)는 지난해 캠브리지 겨울철 운행을 위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브웨이 스테이션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맛집 찾아 떠나는 ... 보스톤의 작은 이태리마을

North End



▷지아꼬모스 레스토랑 (Giacomo's Ristorante)

리틀 이태리의 가장 유명한 맛집 중 하나인 지아꼬모스 레스토랑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 주말 오후에는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의 인내심만 갖는다면 많은 이들이 극찬하는 파스타와 해물 에피타이저를 즐길 수 있다. 이 레스토랑의 칼라마리(Calamari) 튀김은 거의 모든 테이블이 다 주문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유명한 에피타이저다(\$7/\$10). 파스타는 소스와 해산물을 취향대로 고를 수 있으며 가격은 \$15정도다. 영업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10시(일요일 9시 30분)까지다.



▶뽀모도로(Pomodoro)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의 뽀모도로는 지아꼬모스와 더불어 노스엔드의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맛집이다. 굉장히 작은 레스토랑으로 이웃 테이블과 붙어 앉아 먹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친근하고 가족 같은 맛의 분위기를 낸다. 이곳을 다녀간 많은 이들은 약간 매콤한 토마토 베이스의 프라 디아블로(Fra Diavolo)를 파스타 소스로 강력 추천한다. 달콤한 티라미슈도 일품이

라고 하니 후식으로 주문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가격대는 \$15~\$25이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5시에서 11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12시부터 런치를 제공한다.



▶더데일리 캐치(The Daily Catch)

시칠리안(Sicilian) 스타일의 해물 요리와 파스타로 유명한 더데일리 캐치는 오징어먹물 파스타(Black Pasta, \$24)로 특히 유명하다. 일반 파스타의 가격은 \$20~25대로 소스와 해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소스는 시푸드 토마토(토마토 베이스)와 올리브오일&갈릭클램(크림 베이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싱싱한 랍스터(Lobster Fra Diavolo)와 생선 요리도 많이 추천하는 메뉴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마이크 페스츄리(Mike's Pastry)

마이크 페스츄리는 이탈리아 전통 디저트인 카놀리(Cannoli)로 유명한 베이커리다. 작은 튜브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카놀리는 바삭하게 튀겨낸 페스츄리 안에 리코타 치즈나, 크림, 초콜릿 등을 넣은 달콤한 디저트다. 필링(크림)으로는 15가지가 넘는 다양한 크림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양 쪽에는 견과류나 초콜릿 칩이 박혀있어 더욱 고소하다. 초콜릿 칩과 피스타치오가 가장 인기가 좋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강력 추천한다. 가격대는 \$5 이내며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카페 빅토리아(Caffe Victoria)

보스톤의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카페 중 하나인 카페 빅토리아는 카푸치노로 호평이 자자하다. 단골 손님들은 카푸치노와 에스프레소를 많이 찾지만 커피 외에 카놀리, 젤라토, 티라미슈 등의 디저트에도 유명하니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겠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2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보스톤의 가장 오래된 동네 중 하나로 수많은 이탈리아 맛집과 카페가 즐비한 노스엔드(North End)는 1600년대 이탈리아인이 정착해 태어난 명소다. '리틀 이태리(Little Italy)' 라고도 불리는 이 동네는 하나같이 맛있기로 소문난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베이커리, 디저트 가게를 찾는 발걸음으로 한산할 틈이 없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성하게 들어간 파스타와 달콤한 후식으로 이탈리아 페스츄리인 카놀리가 먹고 싶다면 리틀 이태리에서 휴가 같은 한나절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레스토랑이 많기 때문에 거리마다 ATM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역시 현금을 미리 준비해 간다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주차가 힘들기 때문에 지하철로 가는 것을 권장한다. 오렌지라인 헤이마켓 역에서 내리는 것이 가장 가깝다.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김은한 박사, '국민포장' 수상

주보스톤 총영사관, 재외동포 유공자 포상 전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주보스톤총영사관(총영사 엄성준)은 지난 10월 30일 뉴튼에 위치한 총영사관에서 김은한 박사(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인회 고문)에 대한 '제 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 가족과 지인, 한선우 뉴잉글랜드한인회장과 김성혁 민주평통 보스톤협회장, 그리고 총영사관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김 박사의 수상을 축하했다.

1974년 도미한 김은한 박사는 지난 40여년간 의사로 재직하며 보스톤 한인사회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이민 초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20여

년 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사장을 맡아(1978~2000)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한글 교육을 위해 헌신의 힘을 쏟았다.

또한 1990년에는 김문소, 김영집 씨와 함께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를 설립,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및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 힘썼다.

세탁인들의 권의 옹호를 위해 세탁인 협회 고문을 맡았을 당시(1994~2007)에는 친환경 기계 대체 위기, 중국산 철제 옷걸이 덩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트 롬니 주지사, 마이크 혼다 의원 등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평소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강조하는 김 박사는 지난 2009년 보스톤 시장에 출마한 샘윤 보스톤 시의원을 적극 후원하기도 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축사에서 김 박사의 공로를 언급하며 이번 포상이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뉴잉글랜드 한인들과 함께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단합과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일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선우 한인회장 역시 한인들을 대표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반드시 분이 받으셨다" 고 인사를 전했다.

상장과 함께 훈장을 수여 받은 김은한 박사는 "이번 수상에 대한 실적이 여러가지 언급됐지만, 이는 나 혼자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함께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라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뉴잉글랜드 한인들에게 감사하다" 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ostonkorea.com



세계한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 포상을 받은 보스톤코리아 김은한(좌) 칼럼니스트



재미과기협, 젊은 과학기술가 양성 위한 경력개발 워크샵 개최

신청접수 후 200명
최종 선발 예정
여행경비 일부 및
숙박비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안국준)는 미국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학생들과 젊은 연구자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과학기술 전문인 경력개발 워크샵(Scientists and Engineers Early-career Development, SEED) 행사를 개최한다.

12월 6일과 7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소재 르네상스 엘에이에어포트 호텔(Renaissance Los Angeles Airport Hotel)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샵에는 과학기술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구원, 초급경력자의 한인 과학기술자 200명이 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연구비 취득 방안과 취업·승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및 가이드라인을 얻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된다.

이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들과

조교수급 참가자들을 위한 그랜트(Grant) 제안서 작성 방안 • 미국 내 사업, 한미 공동사업, 또는 해외 사업에 대한 연구비 취득 방안 • 학계경력을 위한 워크샵 •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서비스 채용 정보 제공 및 동료 과학기술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워크샵의 기초 연설자료는 보잉 기술이사 김재훈 박사과 캘리포니아 주립대 기술통신전문가 미츠보레츠, NSF 프로그램 디렉터인 클리브 우즈 교수(루이지애나 주립대 전기컴퓨터 학과)가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체에 근무하는 고위급 과학기술전문인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샵 신청 마감일은 11월 8일 토요일이며 이력서 및 기타 구비서류 평가 후 200명이 선발된다. 합격자에게는 여행경비 일부와 숙박비가 지원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12일 수요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워크샵에 대한 문의는 차준호 박사(GDHOD43CHAJH@ksea.org)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힐러리, 카리스마 있는 연설로 마사 코클리 지지

코클리는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모두에게 줄 수 있는 후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전 미국 국무장관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마사 코클리의 지원 유세를 위해 지난 24일 보스톤을 방문했다.

이날 힐러리는 보스톤 소재 보스톤 파크플라자 호텔(Boston Park Plaza Hotel)에서 열린 마사 코클리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참석해 무려 천여 명의 보스톤 시민과 지역 언론을 끌어 모으는 위력을 선보였다. 캠페인 관계자도 “아무래도 힐러리 클린턴의 보스톤 방문 소식이 큰 인파가 몰린 것 같다”며 힐러리 효과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코클리 후보는 “친한 벗이자 인생의 롤모델을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힐러리를 소개했고 힐러리가 등장하자 장소는 뜨거운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찼다. “매사추세츠는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이 뛰어나는데 과연 이곳의 에너지를 보니 알만 하다”며 재치 있게 연설을 시작한 힐러리는 카리스마 있는 연설로 관중을 사로잡았다.

이어 “찰리 베이커는 과거의 실패를 들먹이며 미래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두려움은 희망과 대안이 없는 사람이 내놓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힐러리는 “코클리야말로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후보”라며 코클리를 적



코클리 지원 유세를 위해 보스톤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마사 코클리의 러닝 메이트인 스티브 캐리건(Steve Kerrigan)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에드 마키(Ed Markey),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이 연설을 전달해 캠페인에 한층 뜨거운 열기를 더해 주었다.

캐리건은 상대 후보인 찰리 베이커를 언급하며 “다른 후보는 항상 할로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는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야 한다”며 “코클리가 진정한 민주당원(Real Democrat)”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코클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싸우는 후보”라며 유권자들의 선거를 격려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보스톤 대학

(BU)의 유리 야노(22) 학생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서 선거 캠페인에도 처음 와보는데 벌써 마사 코클리의 팬이 된 것 같다”며 “코클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중간선거가 11월 4일로 다가오자 민주당 후보인 마사 코클리는 힐러리의 지지에 힘입어 여론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적극적인 선거 유세에도 불구하고 WBUR을 비롯한 여러 매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찰리 베이커가 마사 코클리보다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나 선거를 앞둔 마지막 며칠의 접전이 두 후보의 승부수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MIT 여대생 전체 35% 성희롱 당한 경험

▶▶1면에 이어서

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섹스를 강요당했다. 학내 성폭행이 절대 다수였다. 80%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뤄졌고, 72%는 같은 학교 학생에 의한 성폭행이었다. 약 20%의 학생은 누구에게 당했는지 알고 있었으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가해자에게 따지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주 적은 1.9%만이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2.2%는 대응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MIT는 지난 봄 성폭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조치를 단행함과 더불어 더불어 이 조사를 실시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월 한 동문이 학교신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실은 이후 레티프 총장은 성폭행 방식을 학교의 우선과제로 삼았다.

대학내 성폭행 문제가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고 대처하기 위해 대학별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MIT의 이번 조사는 가장

먼저 실시해 실체를 드러낸 것 중의 하나다.

MIT의 조사에 이어 하버드, 예일, 럿거스, 에머슨, 다트머스,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등도 일반적으로 ‘캠퍼스 클라이밍 서베이’라 불리는 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내 많은 대학들이 이 같은 조사실시를 주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익명으로 조사할 경우 피해자들은 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성폭행 문제의 진정한 범위를 노출시킬 것이라며 조사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앤앤티 총장 라파엘 레티프씨는 학교 전체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의 본질과 그 범위에 유감을 금치 못한다. 성폭행은 대학의 가치를 위해하는 것이며 대학에 있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이해를 나누고 정신무장을 할 경우 MIT는 커다란 긍정적인 변화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베이커와 코클리의 5가지 핵심적인 견해 차이



2014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

코클리 조기교육에 전략 집중

베이커 복지 시스템 개혁에 전략 집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주지사 선거는 근래 어느 주지사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치열한 경합 양상을 띠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두 후보의 지지율 결과가 달라 앞서거나 뒤처거나 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11월 4일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는 점차 비슷비슷한 주장으로 중간층 흡수에 안간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 후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

보스톤의 공영라디오 WBUR은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한 차이점을 정리했다.

조기 교육과 K-12 학교 교육

교육 문제는 두 후보가 모두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커다란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마사 코클리 후보는 이번 선거전에서 유치원 전 유아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마사 코클리의 목표는 프리 킨더가든 전면 무상교육이 목표이지만 현재는 빈곤한 커뮤니티를 우선적으로 무료화하는 약식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 저소득층은 프리 스쿨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주 긴 대기자 명단으로 인해 수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16,600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코클리는 수천 프리스쿨을 개설해 대기자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베이커 후보는 가장 어려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기교육 “집중화 투자”를 원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코클리의 프리스쿨에 대한 집중이 초등학교 교육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너무 일찍 교육을 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기도 했다.

베이커 후보는 프리스쿨 대신 주 차터스쿨의 입학정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달 초 주 교육부는 차터스쿨의 정원 증가 신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베이커 후보는 즉각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기도 했다.

코클리는 차터스쿨 정원의 점진적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 같은 차터 스쿨의 확대가 공교육의 질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되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교육

한국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높듯이 한국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비싼 대학 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이에 대해 베이커와 코클리의 입장은 완연히 달랐다.

베이커는 공교육 구조전체의 개혁에 집중했다. 그는 주정부의 추가자금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3년제 학위와 코업(co-op)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성적이 좋은 학생의 경우 4년내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기도 했다. 베이커는 주 고등교육원과 새로운 3년제 학위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협조하기를 원했다.

코클리는 좀더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택했다. 대학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가족들이 학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전액 재정도움 패키지를 만들어 일반적인 파인설 에이드 이외의 부분을 주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 학자금 저축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과세 학자금 저축 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5,000의 세금 감면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코클리 선거본부는 이 두가지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2억 5천만불의 예산이 더 들 것

로 예상하고 있다.

병가

마사 코클리는 올해 주민투표안 4번 근로자들에게 병가를 보장해주는안에 찬성하고 있다. 주민투표안은 11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유급병가를 그 이하의 사업장은 무급 병가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베이커는 이 주민투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안은 너무 과도해서 매사추세츠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병가를 주도록 제안했다. 또한 주민투표안에서 30시간마다 1시간씩 병가를 갖도록 하는 방안 대신 40시간마다 1시간씩 병가를 갖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복지제도 개혁

최근 복지제도 개혁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소득불균형, 병가, 교통 문제보다 이를 더 중요시하는 현상을 보였다.

더우기 복지시스템 개혁의 문제는 비교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권으로 백인 남성 중심인 베이커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베이커는 선거 캠페인의 핵심 사항으로 복지시스템 개혁을 추구했다.

특히 그는 복지 개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대한 인센티브, 웰페어 수혜자 자격인 구직활동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 복지에 있

어 필수요건인 직장 규정 제외 연령을 현행 60에서 65세로 연장 등을 제안했다.

문제는 베이커가 제안한 많은 복지 개혁들이 이미 법제화 되어 주지사 서명을 마친 상태라는 점이다. 베이커는 앞으로도 계속 복지개혁을 추구기로 했다.

코클리는 복지개혁 계획보다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베이커를 비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후 변화

베이커는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기후변화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많은 과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베이커는 이번 선거에서는 인간이 탄산가스를 배출한 주범이며 기후변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클린 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코클리는 기후변화를 축소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광범위한 계획을 요구해왔다. 그녀는 향후 8년 안에 모든 집과 사업체가 에너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매사추세츠 클린에너지 센터의 지원을 현행 2천5백만불에서 두배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매해 1% 이상의 예산을 환경문제에 투자, 그린하우스 가스를 2020년까지는 25%, 2050까지 80%까지 축소한다는 등의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코클리와 베이커 혼전, 승리는 누구?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

최근 여론조사
베이커 3대 1로 유리
베이커 상승세,
코클리도 막판지지층 결집



찰리 베이커 공화당 후보(좌)와 마사 코클리 민주당 후보가 박빙의 혼전을 벌이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선거를 며칠 앞두고 코클리 후보와 베이커 후보의 혼전이 가열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조사기관마다 다른 결과를 내보이면서 향후 예측을 힘들게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8일 발표된 WBUR의 여론조사에서는 베이커 후보가 43대 42로 마사 코클리 후보에게 1포인트 앞서 있었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 결과와 동일한 차이이다.

그러나 최근 전체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베이커 후보가 좀더 유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24일 보스톤 글로브의 여론조사에서 베이커는 9포인트차로 앞서고 있었으며 27일 저녁 발표된 유메스 로웰의 여론조사에서는 베이커 후보가 4포인트 앞서다.

그러나 27일 발표된 뉴욕타임스/CBS 여론조사에서는 코클리 후보가 4포인트 차로 앞서다.

WBUR의 여론조사를 대행하는 매스아앤시(MassINC)의 디렉터 카젤라는 베이커에 주요 그룹에서 상승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베이커의 우세를 점쳤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보스톤에서 베이커 후보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4년전 베이커가 드벌 패트릭과 대결했을 때 무려 47%차이 열세였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단지 24%차이에 불과했다.

또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간선거 참여율이 높은 보스톤의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코클리가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스톤의 백인 유권자에서는 5% 앞

서고 있다. 그러나 보스톤 소수민족층에서는 코클리는 57%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 결국 소수민족의 선거율이 마사 코클리에게는 절대적인 상황이다.

마사 코클리는 그동안 강점이었던 여성유권자 사이에서도 상승세를 잃어가고 있다. 6주전만 해도 무려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20%차이로 앞섰으나 이젠 9%차이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마사 코클리에게 희망적인 면도 있다. 특히 민주당 유권자들의 결집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주일전 민주당 유권자 66%의 지지만 이끌어냈던 코클리는 이번주 들어 71%로 높아졌다.

hsb@bostonkorea.com

베이커의 눈물, 선거 막판 도움될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28일 마지막 토론회에서 베이커의 눈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베이커는 가장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뉴베드포드에서 만난 50대 어부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현장에서 눈물을 보였다.

공영라디오 WBUR는 베이커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 이 토론현장이 2014년 주지사 선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그가 가슴 아픈 어부의 사연을 들었던 것이 5년전이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글로브와의 29일 인터뷰에서 베이커는 “4년전에 들었지만 5분전에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그의 이야기가 2010년 10월 27일 출판된 글로브 칼럼니스트 브라이언 맥 그로리의 칼럼에 실렸던 것으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그로리의 질문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었다.

눈물이 연기였으며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베이커 선거본부는 2009년 선거당시 뉴베드포드 어부들과

만났던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며 진실성을 증명하기에 바빴다.

보스톤 헤럴드는 베이커 선거 본부를 인용해 “이번 어부 이야기와 눈물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헤럴드는 심지어 베이커의 눈물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를 말하라는 질문에 어부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어부의 사연을 이야기 하며 자연 각본처럼 우는 그의 모습에 쉽게 감동하기 힘든 점에 대해서 지적한 언론은 없었다.

어부의 이야기는 이렇다. 땀에 젖은 50대 어부는 대학에 풋볼 장학금으로 다니는 두 아들에게도 바닷일을 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한탄하고 어업이 “암”과 같은 것이며 “두 아들의 장래를 망쳤다”고 털어놓는 사연이었다. 연방 정부의 어획량 제한으로 어업 종사자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 베이커를 울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환절기 건강 걱정 끝!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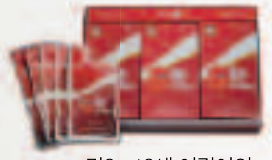
홍삼



만3~5세 유아의
홍이장군 양아륙



만5~9세 어린이의
홍이장군



만9~13세 어린이의
홍이장군 율



공부하는 학생들의
아이패스

모든 자녀용 복방제품

10% OFF

11월12일까지 2주간!

행사 제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구입해 주세요~

KGC인삼공사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기력회복
감기예방 당뇨 합병증 예방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혈액순환 개선 항암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억력 개선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보스톤 시의회 트럭 안전 조례 통과

보스톤 시와 계약하는 모든 트럭에는 측면 가드 의무화



트럭의 측면에 안전 가드를 설치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시의회가 지난 29일, 트럭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트럭 안전 조례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스톤 시와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트럭의 측면에 안전 가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보스톤 시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 트럭에 의무적으로 장비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트럭에 설치되는 안전 가드는 사고 발생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보스톤 시는 트럭 안전 가드 프로그램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에 안전 가드 설치 비용은 차량 한 대당 1,800달러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앞으로 보스톤 시와 계약을 하는 모든 트럭은 안전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마틴 윌시 행정부의 크리스 카터 행정관은 “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 공간에 사람이 끼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측면 안전 가드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하다. 조례에 따르면 1만 파운드 이상의 모든 트럭이 안전 가드를 설치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21.5인치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또한 400 파운드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마틴 윌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더 많은 보스톤 시민들이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트럭에 안전 가드를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 가드를 설치하지 않은 트럭은 적발시 처음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범행을 어기게 되면 보스톤 시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보스톤에서 11명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이중 7명이 트럭이나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영국 런던에서는 비슷한 법을 시행한 뒤 사망자가 61% 감소하고 중상 환자가 13% 감소하였다.

jsi@bostonkorea.com

모조 총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학생 정학 처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톤턴에 거주하는 2명의 고등학생이 총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10일간 정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4일, 브리스톨 플리모스 리저널 테크니컬 스쿨(Bristol Plymouth Regional Technical School)에 재학 중인 티토 벨레즈(15세)와 제이미 페레라는 학교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 가기 위해 한껏 옷을 차려 입었다. 서바이벌 경기를 하는 게 취미인 이들은 댄스 파티에 가기 전에 서바이벌 경기용 총을 들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서바이벌용 총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10월 24일에 워싱턴 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총상을 입고 2명이 사망했다.

브리스톨 플리모스 스쿨의 리차드 그로스 교장은 벨레즈와 페레라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본 후 정학 조치를 내렸다. 그로스 교장은 “학생들은 스스로의 행동이 도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댄스 파티가 열리기 전에 이 사진을 봤다면 아마도 경찰이 댄스 파티를 취소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벨레즈와 페레라의 소식이 알려진 후 많은 이들이 정학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온라인 상에서 내놓고 있다. 진짜 총이 아닌 장난감 총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벨레즈는 WBZ-TV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전혀 위험하지 않다.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며 “우리는 아무도 쏘지 않았다. 심지어(사진 속에서) 총은 바닥을 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jsi@bostonkorea.com



고등학생들이 댄스 파티에 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이들이 들고 있는 총은 진짜 총이 아니다

스티비 원더, 밥 딜런 보스톤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팝 아티스트 스티비 원더가 오는 11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티디 가든(TD Garden)에서 공연한다. 현재 티켓은 플로어석 일부와 발코니석 일부가 남아있다. 플로어석 티켓 가

격은 \$400, 발코니석 티켓 가격은 \$75-90정도다.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은 14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보스톤 오르페움 시어터(Orpheum Theatre)에서 공연한다. 밥 딜런의 공연 티켓은 대부분 리세

일 티켓만 남아 있다. 그중 티켓네트 워크(ticketnetwork.com)에서 그나마 가장 저렴하게 티켓을 구할 수 있

다. \$87에서 \$101까지의 발코니 티켓이 일부 남아 있다.

hsb@bostonkorea.com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BEDFORD 지역 단독주택

(3 CEDAR LANE, BEDFORD, MA 01730)
For sale: \$ 599,000, For rent: \$ 2,350

3+ Beds, 2 Bath, 2238 sf (Lot size: 1.3 acre)
학군 좋은 Bedford지역 Single House, CUL-DU-SAC,
Private한 곳에 위치, 넓은 정원

미국 갑부 42명 정치자금 2억 달러 기부...전체 3분의 1수준

■슈퍼팩에 밀리언 이상

기부자 42명

(달라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지난해 1월 이래 미국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정치활동위원회)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미국의 갑부가 42명에 달한다고 미 일간지 USA 투데이가 29일 전했다.

신문은 이들 갑부가 낸 돈이 총 2억 달러로, 다음 달 4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체 슈퍼팩에 기탁된 정치자금 6억1천500만 달러의 1/3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헤지펀드 업계 거물에서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민주당 성향의 억만장자 탐 스테어(Tom Steyer)가 가장 많은 7천3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돈은 그가 세운 슈퍼팩인 '차세대 기후 행동'에 주로 기탁돼 기후 변화 시대를 맞아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총기 사용 규제에 앞장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두 번째로 많은 2천만 달러를 냈다. 기부금의 65%가 역시 자신이 세운 슈퍼팩 '인디펜던스 USA'로 간다.

공화당 인사였다가 무소속으로 돌아선 블룸버그 전 시장은 주(州) 차원의 경선에서 두 명의 공화당 베테랑 후보를 돕기도 했으나 연방 차원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돕고 있다.

그는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를 돕는 슈퍼팩에 350만 달러를 기부했다. 공화당 성향의 억만장자 사업가 폴

싱어는 자신의 '일치된 미국'(American Unity)이라는 슈퍼팩에 거액을 기부해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화당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싱어는 '아메리칸 크로스로드', '엔딩 스펀딩'과 같은 대표적인 공화당 슈퍼팩에도 성금을 내는 등 총 930만 달러를 기부했다.

USA 투데이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을 바라는 거부 6명이 최근 몇 주 사이 아메리칸 크로스로드와 엔딩 스펀딩에 거액을 냈다고 소개했다.

공화당 골수인 석유 재벌 찰스 데이비드 코크 형제는 지지 후보들의 마지막 선거 광고에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 등 슈퍼팩에 2천100만 달러 이상을 썼다.

100만 달러 이상을 낸 부자 중 유일한 여성은 프로레슬링 단체 WWE의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두 차례 낙선 경험이 있는 린다 맥마흔으로, 그는 공화당 지원 슈퍼팩에 263만 달러를 맡겼다.

정치자금 조사 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의 세일러 크롬홀츠는 "정치자금 모금을 이끈 사람들은 소수의 거액 기부자들"이라며 "이러한 경향은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기술혁신센터장인 대릴 웨스트 박사도 저서 '억만장자들'에서 이들의 정책 결정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CRP는 전체 슈퍼팩이 모은 자금 중 28일까지 사용된 선거 자금은 1억700만 달러라고 추산했다.

CRP는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보수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민주당 성향의 억만장자 탐 스테어

단체와 각 개인이 올해 중간선거에 투입하는 비용을 역대 최다인 36억8천만 달러(약 3조9천억 원)로 예상한 바 있다.

삼성, 혁신기업 3위로 밀려... 애플 1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혁신기업 평가에서 2위에 오른 삼성이 올해 구글에 밀려 3위로 떨어졌다.

BCG는 전 세계 기업 경영진 1천500명을 대상으로 기업 혁신 역량을 설문 조사한 '2014 가장 혁신적인 기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08년 26위에 머물던 삼성은 지난해 24계단 상승해 구글을 밀어내고 2위에 올랐으나 올해 다시 순위가 바뀌었다. LG전자는 지난해 25위에서 올해 17위로 올라갔다.

1위는 애플이 10년 연속 차지했다. runran@yna.co.kr

미 언론계, 오바마 행정부 언론정책 성토

오바마 행정부 폐쇄적인 언론정책에 기자들 분노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 "내가 취재해 본 백악관 중에서 가장 비밀스런 백악관이다"(뉴욕타임스의 첫 여성 편집인을 지낸 질 에이브럼슨)

"오바마 행정부의 언론 통제는 조지 부시 시절보다 훨씬 심하다"(CBS 방송의 밥 쉬퍼 앵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언론인들이 가진 불만들이다. 27일(이하 현지시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백악관 기자단(WHCA)이 이틀 전 개최한 세미나에서 폐쇄 일변도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불만이 쏟아졌다.

수전 페이지 USA 투데이 워싱턴 지국장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백악관은 역대 어느 백악관보다(언론에) 더 제한적이고 더 위험한 곳"이라고 성토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장 투명하다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폐쇄적인 오바마 행정부의 언론정책에 어떻게 맞설지를 고민하고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욕타임스에서 워싱턴DC를 담당하는 피터 베이커 기사는 최근에 겪은 일화를 소개하며 혀를 내둘렀다.

한 백악관 참모가 '백브리핑'을 조건으로 문제의 사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 자신에게 듣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것이다.

백브리핑은 본래 실명이나 인용을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도 굳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백악관 분위기가 경직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USA 투데이는 이날 세미나의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른 것이 전날 백악관이 또다시 헛발질을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에블라에 감염됐다 완치된 간호사인 니나 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취재나 방송 카메라 기사가 아닌 일반 사진기자에게만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다.

ABC의 칼 기사가 그 이유를 묻자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여러분의 상당수는 팸 기사가 국립보건원(NIH)에서 퇴원하면서 발언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이에 칼 기사가 "그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못된다. 내 질문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는 것"이라고 따지자 어니스트 대변인은 "기자들이 이미 팸 기사가 말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어니스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팸 기자 모두 이번 행사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백악관의 해명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USA 투데이는 꼬집었다.

wolf85@yna.co.kr

안티비(AN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2014년 9월5일~10월31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학생 할인 \$14.99 (2년 약정시)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1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토요일 (10am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굿바이' 양적완화...돈 잔치는 끝

- 초저금리 상당기간 유지
- 기준금리 인상 시기
향후 경제지표에 달려
- 글로벌 경제 다시 한번
미국 손에 쥐락 펴락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3차 양적완화(QE) 정책의 종료를 선언했다.

연준은 29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150억달러 남아있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음달부터 더 이상 채권을 사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연준은 모기지담보증권(MBS)을 50억달러, 국채를 100억달러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안정 속에서 최대 고용을 향한 지속적인 전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서 충분한 근본적인 강세가 이어질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연준은 글로벌 경제는 여러 지역에서 둔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5년만에 양적완화를 축소한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완전하게 마무리했다.

성명은 최근 나타난 금융시장의 변동성, 유로존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약화 전망이 연준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전진을 방해할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거의 묵살

미 연방 준비은행이 양적완화를 끝냄에 따라 국제 경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다시 국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다시피 했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시장에서의 슬랙(slack·완전고용과 현재 고용 수준의 차이)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특히 지난 9월 성명서에서 우려를 나타냈던 '노동자원 활용의 부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노동자원 저 활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준은 "가계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 재고투자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라야나 코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저(低)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날 10명의 연준 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 선제적 안내,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인상 시기·속도, 지표들에 달려 추가

이날 관심을 모았던 포워드가이던스(선제적 지침)는 초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한다면 인상 시기와 속도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선제적 지침이란 연준이 통화정책

에 대해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 잣대를 미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연준은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시장 예상대로 제로(0)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상당기간'(considerable time) 유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담은 문구를 고수했다.

다만, 향후 경제지표들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을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는 경제 개선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연준의 이번 성명서가 다소 매과적으로 이동한 것이다.

지난 회의 때 반대표를 행사했던 리처드 피셔 델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조기 금리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전문채널 CNBC가 실시한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오는 2015년 7월쯤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CNBC가 조사했던 때보다 1개월 정도 뒤로 밀린

결과다.

◇ QE, 약 6년간 4700조원 시중에 풀어美·글로벌 경기회복 도와

양적완화 종료는 대공황 이후 최대 고비였던 2007~8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린다는 의미로 일명 '헬리콥터 벤'으로 불리며 시장에 QE를 시작하지 5년8개월 만이다.

QE는 그동안 3차에 걸쳐 진행됐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차 양적완화가 진행됐다. 또한 이번에 종료된 3차 양적완화는 2012년 9월에 시작됐다.

그동안 시중에 투입된 자금은 약 4조4800억달러(약 4701조원)에 이른다. 신용경색에 질식해가던 시장은 이러한 '돈 잔치'에 숨통을 틔우고 글로벌 경제도 더불어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QE 종료는 미국 경기가 충분히 회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용지표, 주택지표, 소비지표, 제조업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개선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은 3차 양적완화 시작 직전 8.1%에서 지난달엔 5.9%로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엔 2.1% 위축됐으나 2분기엔 4.6%로 증가했다. 이번 주 발표될 3분기 기록은 3.1%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유로존,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경제가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나 홀로 경제 개선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포스트 QE 시대...글로벌 경제에 미칠 여파에 촉각

연준의 양적완화가 완전하게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폭풍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중단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자산매입이 중단될 경우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시장금리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실물 경기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에 풀리는 자금이 줄어 달러의 공급이 감소되면 미 달러화 강세는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의 수출 감소 등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신흥국에 몰린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이른바 외국인 자금 '엑소더스'(대탈출)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양적완화 종료 후에도 연준이 3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이미 시중에 풀어놓은 자금이 경기부양정책 효과를 지속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연준이 양적완화를 끝내도 시장 불안을 고려해 곧바로 유동성 회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 QE 중단, 우리나라에도 자금경색 나타날까?

신흥국의 외국인 자본 엑소더스로 자금경색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도 외국자본 이탈과 수출시장 침체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서 미국 통화정책이 급변하면 아시아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예상한 4%보다 낮은 3% 초반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

acenes@news1.kr



Come to Chungdahm ReadWrite Vacation Days
Sign Up Now!

No school on November 11th Tuesday?

Vacation Days is an all-day program designed to give students a leg up and have fun during school holidays. Students will work on school assignments,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participate in plenty of creative fun.

When:

Vacation Days is offered the following holidays:

- November 11th Tuesday
- January 19th Monday
- February 16th-20th Monday-Friday
- April 3rd Friday
- April 20th-24th Monday-Friday

Time:

From 9:00am to 3:00pm

Schedule:

- 9:00am- 9:30am Homework Hall: Reading and Homework Completion
- 9:30am- 11:00am Snack and Outdoor Activities or Indoor Exercise
- 11:00am- 12:30pm ReadWrite Class
- 12:30pm- 1:00pm Lunch
- 1:00pm- 1:45pm Homework Hall and Essay Writing
- 1:45pm- 3:00pm Free Choice Fun - Choose your own creative projects, board games, and more!

Price:

For Chungdahm ReadWrite students: \$60/day
For other students: \$72/day



Come to Chungdahm ReadWrite Vacation Days!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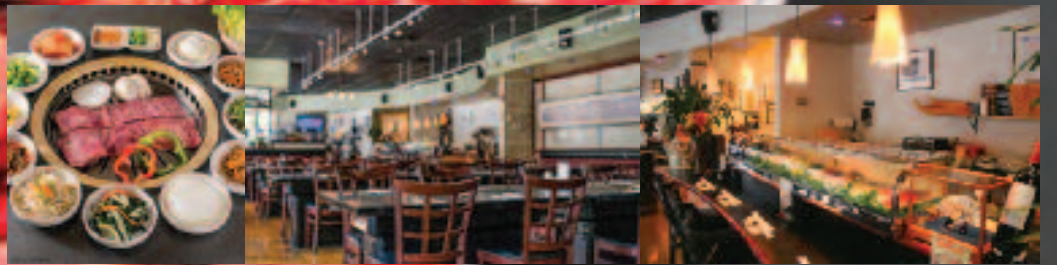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김무성 · 문희상의 한날 연설... '야유' 사라지고 '배려' 등장

김 야당에 비판 대신 제안
공무원 연금개혁 의지
문 배려와 존중의 모습
그러나 초이노믹스 비판

(서울=뉴스1) 진성훈, 유기림, 서미선 기자 = 여야 대표는 30일 12년 만에 나란히 같은 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특히 각각 지난 7월과 9월 취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의 이날 연설에는 야당을 향한 비판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야당을 향해 '협조'를 호소하고 '제안'을 했을 뿐이다.

또한 김 대표에 이어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문 위원장은 당초 사전배포된 원고에 없는 몇몇 구절들을 즉석에서 추가했다.

그는 "조금 아까 여당 대표도 말했지만 고통의 분담도 이제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또 다른

대목에서도 "오늘 앞서 여당 대표께서는 대타협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 김 대표의 연설 내용에 호응하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김 대표의 '국회 선진화법 재검토 제안'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연설이 끝난 후 서로의 연설에 대한 평가도 후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고, 문 위원장 역시 "차분하고 실용적인 접근이다. 여당 대표답다"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통상 상대당 교섭단체대표연설 직후 당에서 내놓는 논평과 관련해 "상대당 대표 발언을 비판하면 안된다"며 "우리 대변인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이 연설 직후 내놓은 논평에는 문 위원장의 연설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동참을 호소하는 부분에서는 감정이 복받친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9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김 대표는 바로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정치'국민'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라고 말을 하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새정치국민연합'으로 잘못 읽기도 했다.

김 대표에 이어 연단에 오른 문 위

원장은 연설을 시작하기 전 마이크를 살짝 밑으로 내리면서 "(김 대표가) 키가 크시구나"라고 웃으며 혼잣말을 해 의석에서 잠시 웃음소리가 퍼지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연설 내내 강단 있는 어조와 말투를 이어갔으며 특히 '초이노믹스'를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본회의에 참석해 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 장관을 두 차례나 똑바로 응시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또 연설 막바지에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차가워 가는 바다 속 아홉 명의 숭고한 영혼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true@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OCT.31, 2014 - NOV. 6,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Healthy, wealthy & Wise Sale

Keep your health in mind and your wallet in line.

마트가 제안하는 가을 건강식으로 건강은 물론, 세일까지 모두 챙기세요!

DANYA SEASONED POLLACK ROE
단야 명란젓 7oz.
\$7.99

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 lb.
\$1.99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8

BEEF 도가니 PATELLA BONE lb.
\$1.49

TONGTONGBAY FROZEN SMALL OCTOPUS
통통배 싱싱낙지 1.5 lbs.
\$6.99

Napa Cabbage 배추 박스 box \$9.99	Fuyu 단감 박스 box \$11.9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8	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4.99	Beef Flank Steak 앞치마 양지 (육개장) lb. \$6.99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바베크용 삼겹살 lb. \$5.9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lb. \$5.99	Illex Squid 냉동 오징어 450-600's/lb. \$1.99	Rainbow Trout 무지개 송어 lb. \$5.99	TONGTONGBAY Dried Anchovy 통통배 지리멸치 8oz. \$8.99
TONGTONGBAY Frozen Half Cut Crab 통통배 절단 꽃게 2L/pkg. \$5.99	Kyong Gi Rice 경기미 (햅쌀) 40 lbs. \$29.99	NONGSHIM Shin/Kimchi/Hot&Spicy Bowl Noodle Soup 농심 신김치/육개장 사발면 3.03oz. x 12ea./pkg. \$9.99	GWANGCHUN Roasted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0.71oz. x 10ea./box \$9.99	HAIOREUM K Dumplings 해오름 손끝만두 All Varieties/1.57 - 1.59 lbs. \$4.99
HAIOREUM Imitation Crab Meat Sticks 해오름 게맛살 2.2 lbs. \$2.99	SHIRAKIKU Samukiya Udon 시라키쿠 사무키야 우동 8.8oz. x 5ea./pkg. \$3.99	ORION O! Karto 오리온 외 감자 Original/Chili Chili 4.06oz. \$1.99	HAIOREUM Aloe Vera Drink 해오름 알로에 베라 드링크 All Flavors/50.7fl.oz. \$1.99	HORMEL FOODS Spam 스팸 Classic/25% Less Sodium/Lite - 12oz. 2\$6 ea./for
SCOTT Bathroom Tissue 스캣 화장지 20rolls/pkg. \$13.99	Plastic Bag Multi Cap 비닐봉지 멀티캡 Large/ea. \$2.99	HELLO HOME Fry Pan 헬로홈 후라이팬 28cm/ea. \$5.99	CYCLEAN Multi Broom 싸이클린 1단 멀티 빗자루 ea. \$13.99	ZOJIRUSHI Stainless Steel Vacuum Bottle 조지루시 보온 물병 SV-GH50/0.5L/ea. \$18.99

Snack-Size Treats Super-Size Savings

ENJOY GREAT PRICES ON ALL YOUR KOREAN FAVORITES IN SNACK SIZES!

마트에서 펼쳐지는 오리온 & 오성 과자 특판전!

HMART'S SPECIAL SALE

아이템이 조기품절이 될 수 있습니다.

GET SMART TO SAVE BIG

오늘부터 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Smart card shoppers know how to get extra discounts. They also get special in-store savings and special entry into our unique sweepstakes thruout the year. Smart card shoppers also know you get a \$10 gift certificate for every \$1000 purchased.

SUMMER ENDS SAVING STARTS

Please turn back your clocks 1 hour on Nov. 2nd (Sun.) at 2AM.

11월 2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세요!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의원들 태도 지난해와 달라

여당 박수 매 1분마다, 29번 • 야당도 경청 대통령 악수 거부했던 지난해보다 우호적

(서울=뉴스1) 여태경,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짜늘한 분위기였던 지난해 첫 국회 시정연설과는 달리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야당 의원들까지 박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는 등 지난해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10시 4분부터 총 35분 동안 '경제 살리기'에 연설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부터 기립박수로 환영하며 연설이 끝나고 퇴장할 때까지 총 29번

의 박수를 보냈다. 거의 1분마다 한 번씩 박수를 친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할 때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반면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처럼 박 대통령 입장과 퇴장 때 기립만 하고 박수를 함께 치지는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연설 내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박지연 의원 등은 미리 제공된 연설문을 정독하며 박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에는 여당 의원들만 35번의 박수를 보내며 열렬히 환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에 집중하지 않고 사담을 나누거나 일부 의원들은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한길 의원과 장인상을 당한 안철수 의원,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지난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흰 마스크를 쓴 채 참석했던 통합진보당 의원들도 이번 시정연설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해 연설을 들었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 지난해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후 퇴장할 때 일어나지 않고 악수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날은 박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맨 앞줄에 앉은 여야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들에게 순서대로 악수를 청하자 야당 의원들도 이에 응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본회의장 뒷쪽으로 퇴장하면서 한 줄로 선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최근

갈등설이 제기된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김태호 의원 등도 악수를 나눴고, 서청원 최고위원과는 지나가다 돌아와 악수했다.

haru@news1.kr

세월호가족 "살려주세요" 박 대통령 '외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올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으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국회 본청으로 입장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전날(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면담을 재차 요청했고, 전날 밤부터 본청 앞에서 밤을 새고 박 대통령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청 앞 분위기는 삼엄했다. 경찰 병력과 경호원들은 유가족이 있는 농성장에 주황색 폴리스라인을 두르고, 삼중으로 둘러싸 유가족을 막아섰다. 본청으로 올라오는 계단 앞에는 관광버스 세 대를 나란히 세워 방호벽을 쳤다.

세월호 유가족은 본청 입구 양쪽에서 '유가족이 절규한다 신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의 진실 못 밝히나오 안 밝히나오', '유가족 참여 특별법 제정' 등이 적힌 피켓을 두 손으로 든 채 박 대통령을 맞았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기간 단식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박 대통령이 본청 앞에 도착하자 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여기 애들 좀 봐주세요", "보지도 않고 지나가나요, 특별법 제정해주시고 약속했잖아요. 국민들이 살려달라잖아, 자식 잃은 부모들이 살려달라잖아"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향해 고개도 한번 돌리지 않은 채 곧장 본청 안으로 향했다. 본청 문 앞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중 나와 박 대통령을 맞이했다.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원구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며 피켓을 들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나치고 있다

"경제활성화만 되풀이, 국민이 듣고 싶은 내용은 없어"

문희상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국민이 아는 얘기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월호 참사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당면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경제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부 정책의 기초만 설명한 것으로 두고 비판과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한정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 체결에 대해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없이 국회의 비준동의 처리만 주문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박 대통

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고 나선 것은 용기 있는 일"이라며 "다만 졸속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충분한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sanghwi@news1.kr

정치권, 신해철 별세 '애도'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정치권은 28일 가수 신해철의 별세와 관련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제가 아는 신해철씨는 불합리한 것에 앞서서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가진, 멋진 사람이었다"며 "대선 때 유세하러 가는 곳마다 울려 퍼지던 '그대에게'의 벽찬 음악은 제게는 평생의 고마움"이라고 애도했다.

문 의원은 신해철의 사망 전 "아침마다 신해철씨가 깨어났는지 검색하게 된다"며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닿아 빨리 털고 일어나길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pjy1@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정부 전 · 월세대책 "또 대출 완화? 언발에 오줌누기"

[10·30 서민주거방안] 일선 중개업자 "월세 지원 적절, 대출에 한정된 것은 아쉬워"

임차 계약시 전세대출 사용자 과반 수준

"월세 사용 늘긴 할 것"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세입자 대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어 세입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은 대출 금리 인하 정도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잔여물량 1만4000가구는 11월로 앞당겨 공급된다. 추가 3000가구를 12월 중으로 공급하고 2015년 예정 물량도 4만 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건설 시 지자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되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

원 등도 강화한다.

특히 전세 보증금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디딤돌 대출은 월세세입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 고정금리 3.3%가 적용되던 디딤돌 대출은 3.3%~2.7%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이라는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추가로 우대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한 뒤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를 우대해 보증부 월세 세입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입자들의 금리 부담과 월세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5년도에 한해 △취업 준비생 △기초생활수급자(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되며 한도 720만원에 유예 기간은 3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30일 서울 잠실의 한 종합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들이 붙어있다

년이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의 많이 이용했던 만큼 이번 월세 대출의 이용률도 높을 것이라 예상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J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임차 거래의 50~70% 가량은 일정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이뤄진다"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던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금리 지원이 확대된 만큼 월세 거래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서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대출 지원 정책이나"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컸다. 대출 지원 정책으로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도 해결해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미 서민들의 전세 대출 이용률과 가계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임대인의 반발이 다소 있더라도 전월가 상한제 등 가격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급주택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는 면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다. 성북구 길음동 L공인 대표는 "공급량을 조정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용자 사업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집값을 잡지 못하는 대출 지원은 전세-매매 전환을 방해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함양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임차 시장의 불안을 다독일만한 주택공급책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며 "반찬은 많으나 손이 갈만한 맛있는 반찬이 없는 느낌의 대책은 임차시장의 불안만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dosool@yna.co.kr

"일본식 디플레이션 한국 경제, 해법 있다"

경제 펀더멘탈은 충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디플레이션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CNBC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NG의 아시아 리서치 담당 대표 팀 콘돈은 "한국 경제가 여러모로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무척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국내 소비는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소비자자동화조사에서 10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002년 2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인 2.7%를 기록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은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일본의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1990년대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한 시기이다.

한국과 과거 일본은 장기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이 심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22개월 연속으로 1%대를 기록해 한국은행의 목표치 2.5~3.5%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이라는 긴긴 고통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달 중순,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더욱이 1990년대에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원/엔 환율은 지난 2년 동안 33% 하락했다.

물가 상승률이 약화되고 성장세도 부진하자 최 부총리는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한국 경제 규모(GDP)의 약 3%에 해당하는 39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부양책은 효과를 발휘했다.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97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5조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06년 11월 5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8년만에 최대치다

다만, ING의 콘돈은 가계가 부채를 상환하는 대신에 소비를 늘리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용붐(credit boom)'이 촉발돼 부양책의 목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해 몇몇 전

문가들은 디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펴낸 통화정책방향에서 이 총재는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는 임박한 리스크는 없다고 강조하며 물가 하락은 유가 하락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독일 무역보험기관 울러 헤르메스는 이 점에 동의한다. 이번달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기가 부진한 이유를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다는 상품가 하락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외부 충격 탓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장 전망치는 내수 개선에 힘입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은 움직임 여력을 갖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밑돌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내년도 담뱃값 80% 인상은 디플레이션 위험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씨티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담뱃값을 갑당 2000원 정도 높이려고 하는데 이는 CPI를 0.6%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화재 지분 인수 승인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을 인수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식취득신청을 승인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와 삼성화재 지분 0.09%를 보유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보유하던 삼성자산운용 지분 7.7%를 삼성생명에 매각하고 252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을 매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적 검토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6월말 기준 이권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 최대주주며, 삼성에버랜드(19.34%),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이다.

rckye@news1.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국내/국제 항공권 할인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하와이, 캐나다, 알래스카 등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4262(HANA)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항아리	목적	부정산제
1. 보습	수분 공급	수분 공급
2. 영양	영양 공급	영양 공급
3. 보온	보온 효과	보온 효과
4. 보냉	보냉 효과	보냉 효과
5. 보습	보습 효과	보습 효과
6. 보온	보온 효과	보온 효과
7. 보냉	보냉 효과	보냉 효과
8. 보습	보습 효과	보습 효과
9. 보온	보온 효과	보온 효과
10. 보냉	보냉 효과	보냉 효과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우유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 증가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하루 우유 3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은 스웨덴 웁살라대학의 칼 마이클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지난 20년 동안 여성 6만1000명과 11년 동안 남성 4만50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하루 우유 석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심장병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그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우유 석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조기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2배나 됐다.

하루 우유 석잔 이상은 680ml 이상 우유를 마시는 것이다. 하지만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골절 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를 하루 석잔 이상 마시면 오히려 안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엉덩이 골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칼 마이클슨 교수는 "취약성 골절 예방을 위해 우유를 많이 마시라는 권고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대신 사망률이 높아

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루 우유 석잔 이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하루 우유 석잔 이상, 놀랍다", "하루 우유 세 잔 이상, 결코 많이 마시는게 좋은 건 아니네", "하루 우유 세 잔 이상, 한잔만 마셔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아몬드 효능, 뇌 건강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되지만 '하루 23알만'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아몬드 효능이 화제다.

동물성 지방이 아닌 식물성 지방을 가지고 있는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가 다량 함유돼 있다.

아몬드 역시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가 많아 뇌 건강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뼈에 좋은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들 간식으로 좋다. 또한 아몬드는 수험생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효능이 있다.

아몬드는 중장년에게도 노화와 골다공증, 치매 예방 및 간 건강과 심장 질환 개선을 돕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권장된다. 특히 껍질을 벗긴 아몬드를 믹서로 갈아서 아몬드 밀크로 만들어 먹으면 위산과다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아몬드의 열량은 100g 기준 582kcal로 피칸(700kcal) 헤이즐넛(635kcal)보다 낮은 편이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아몬드 효능 © KBS2 방송 화면 캡처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아몬드 효능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탁월하지만 과잉 섭취하면 위와 장의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칼로리가 높아 살찔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보통 아몬드의 하루 권장량은 1온스로 약 23알 정도

다.

아몬드 효능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몬드 효능, 식물성 지방이구나", "아몬드 효능, 앞으로는 매일 조금씩 먹어야지", "아몬드 효능, 아몬드 맛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가장 오래된 한국인 얼굴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가장 오래된 한국인 얼굴이 화제다.

29일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시아 대륙 곳곳에서 일제가 수집한 문화재들을 최근 공개했다. 그중에는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 가장 오래된 한국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얼굴 모양 가면 한 쌍이 처음으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가면은 2~3세기 부여에서 만든 금동 가면으로 말이나 무기 등에 부착한 장식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울산 반구대 암각화 등과는 달리 눈코입은 물론 귀고리를 건 흔적까지 완벽히 남아 있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인의 얼굴로 보고 있다.



부여 금동 가면, KBS1 뉴스 캡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얼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가면의 형태로 볼 수

있는 유적으로는 부여의 금동 가면이 처음일 것이다"고 전했다.

js753@news1.kr

청 "대통령 전용 운동기구 있지 만 필라테스 스튜디오 아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 내에 박근혜 대통령만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 '청와대에 대통령 전용 헬스시설이 있느냐'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기구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비서관은 '청와대가 1억원 상당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장비를 구입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엔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필라테스 장비가) 어떤 건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선 지난 1년6개월 간 직원용, 그리고 출입기자들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헬스기구를 구입하고 오래된 기구를 교체했다"면서 "구입한 헬스기구의 많은 부분은 직원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비서관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구입한 운

동기구들에 대한 납품업체와의 거래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최 의원의 요구엔 "청와대 내의 모든 기구는 정부 물품으로 등록해 관리한다"면서 "(최 의원이 요구한) 거래 내역엔 납품업체의 영업상 비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걸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기구 중에도 노후돼 교체할 게 있다"면서 "대통령의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생활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의원은 "헬스기구가 무슨 사생활이냐"면서 거듭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유명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제2부속실 행정관의 담당 업무에 관한 질문엔 "윤 행정관은 2부속실 소속이고, 2부속실은 (대통령) 수행과 민원 업무를 담당한다"면서도 "(담당 업무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ys4174@news1.kr

청 "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1억대 운동기구 구입 이유가..."

(서울=뉴스1) 장용석, 유기림 기자 = 청와대는 28일 유명 헬스 트레이너 출신의 윤전추 제2부속실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할 당시 1억원대에 이르는 운동기구를 구입한데 따른 논란에 대해 '청와대 직원용'으로 구입한 것이라 취지로 해명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 청와대 내엔 직원들과 출입 기자를 위한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2월 윤 행정관이 행정관으로 발탁된 이후 청와대에서 각종 운동기구를 구입한 사실을 들어 "윤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 비서관은 이날 '윤 행정관이 몇 살이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 행정관과 행정요원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전지현의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린 윤전추 (34)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

근접 보좌하고 여러 국가 기밀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사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미 언론에 34세라고 보도됐는데 그게 기밀이냐"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최 의원은 "안전행정부를 통해 알아보니까 윤 행정관이 대한민국 3급 공무원 중에 최연소"라고도 말했다.

ys4174@news1.kr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학업성적을 좌우하는 Academic Writing 향상 및 SSAT/ SAT/TOEFL 목표점수 달성

2014 추수감사절 학업 향상 프로그램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23일과 27일은 제외)

오전 9:30 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강좌

SAT

- Vocabulary
- Grammar
- Critical Reading
- Essay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개별과목 선택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학비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TOEFL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shortcut만 찾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THAS의 특별한 TOEFL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연습한 덕분에 TOEFL 고득점은 물론 학업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 R.Kim (TAHS Student)
Johns Hopkins 대학 입학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 William Jameson (TAH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AHS helped me to gain the greatest result in a very short time. It was not only a test preparation institute, but moreover was my mentor, who encouraged me and brought confidence in me. Above all those things, the best thing about the academy was that it wasn’t just a place for me to go and study, but also was a place where I felt cared regarding my happiness and future. I believe it was an excellent choice in my life that I chose to take classes at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 V. Maeng (TAHS Student) Wellesley College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하버드역에서 1분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Beef Soup at Seol
서울설령탕
SEOUL SOULONGTANG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L
KOREAN • SUSHI • WINES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새빛 10주년 감사축제

4월교회 10주년 감사축제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 감사 음악 축제: 11월8일(토) 오후 7:00
- 감사 및 임직예배: 11월9일(주일) 오전 11:30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780 Main St., Waltham, MA 02420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30 Avonlea Drive in Parkville, Missouri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함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함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함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상담비 150 → 80 수술 예약비 120 → 60 수술 당일 거 20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킨케어 패키지 19만 → 15만 스킨케어 패키지 20만 → 16만 스킨케어 패키지 25만 → 2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신 흉곽외과 32만 → 26만 전신 흉곽외과 38만 → 30만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경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까지 80만

이윤수 & 조성원 비뇨기과


11월 11일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2014년 8월 ~ 11월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근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 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비즈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트리어츠 시즌 중간 점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패트리어츠는 정규시즌 전체 16경기 중 절반인 8경기를 소화했다. 패트리어츠의 현재 성적은 6승 2패로 AFC 동부지구에서는 1위, AFC 전체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2달 간의 패트리어츠 경기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었다. 충격적인 개막전 패배에 이어 최악체 팀을 상대로 졸전 끝에 간신히 승리, 그리고 4주차에 있었던 치프스와의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대패를 당하며 패트리어츠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5주차 이후부터 패트리어츠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내리 4연승을 달리며 예전의 폭발적인 공격력도 살아나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벵갈스를 상대로 26점, 빌스를 상대로 15점, 베어스를 상대로 28점 차이 승리를 거두었다.

전반기에 상대했던 팀들이 비교적 쉬운 팀이었다면, 패트리어츠가 앞으로 후반기에 상대해야 할 팀들은 더 어려운 강팀들이다. 당장 AFC 최강팀으로 불리는 브루코스와 이번 주에 경기를 갖고, 폴츠, 팩커스, 차저스 등의 팀들과 줄줄이 경기를 앞두고 있다.

시즌의 절반을 마치고 후반기로 접어드는 패트리어츠의 현재 상황을 살

펴보자.

오픈스: A

초반 4경기까지 마쳤을 때 많은 이들이 쿼터백 탐 브래디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후 4경기에서 브래디는 1,300야드 가까이 패스를 하고 1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인터셉션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브래디가 엘리트 쿼터백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부상에서 회복한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는 예전의 괴물 같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한 달 동안 그롱코스키는 27번의 패스를 받아 400야드 이상 전진하고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브랜든 라펠과 줄리안 에들먼 역시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다. 주전 러닝백 스티븐 리들리가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이 끝났지만 새로 로스터에 합류한 조나스 그레이가 예상 외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첫 한 달 간의 경기를 마쳤을 때 경기당 20점을 득점하는 패트리어츠의 공격 순위는 리그 24위였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당 30점에 가까이 득점을 하며 공격 부문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디펜스: B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패트리어츠에 딱 들어맞는다. 패



부상에서 회복한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는 베어스전에서 3개의 터치다운을 성공했다

트리어츠는 시즌 시작부터 경기당 22점 정도를 내주고 있다. 패트리어츠가 경기당 20점을 득점할 때는 수비가 부실해 보였지만, 지금처럼 경기당 30점을 득점한다면 22점을 내주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수비의 핵심인 라인메커 제라드 메이요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메이요가 빠진 이후

패트리어츠는 러닝에 대한 수비가 눈에 띄게 약해져 경기당 130야드를 허용하며 리그 24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경기당 210야드를 허용하는 패스 수비는 리그 2위로 최고 수준이다.

코칭 스태프: B+

만약 시즌 초반의 부진에 대해 패트리어츠의 코칭 스태프를 비난한다면, 부진을 벗어나 멋지게 재기한 것에 대

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빌 벨리치 감독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혹은 벨리치 감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말은 아직 시기상조다. 현재의 추세라면 패트리어츠는 올해도 어김없이 AFC 탐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취미로서의 골프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66

지난 주말 직장 동료들과 골프장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미리 준비해서 라운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단합대회를 하긴 해야겠는데 무엇이 좋을까 궁리하던 중에 지난 번 친선 단합골프대회를 계획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무산된 것을 갑작스레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부서에 한국사람들이 4명이 있어서 골프 라운딩을 하는데 섬 (Some)을 맞추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네 명이라는 숫자는 섬을 만드는 데는 아주 알맞았는데, 골프의 실력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해나가야 할지 많이 망설여질 정도로 다양했다. 흔히들 하는 핸디를 주어서 경기를 하기도 너무나도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있었다. 한 명은 프로, 한 명은 물보기 플레이어, 한 명은 두세 번 필드에 나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다른 한 명은 연습장에서 언젠가 한번 골프채를 휘둘러 본 경험이 있는 머리도 올려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씩 편을 짜서 저녁내기 골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보았지만 제대로 조편성이 되질 않아서 일단 시작하고 나서 추후 생각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하는것을 보니까 대강 견적이 나왔다. 내기 골프를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 그림이 나왔다. 규정대로 돌아오기를 하려면 아마도 한 홀 끝내는데 한 시간은 족히 걸리는 그림이다. 골프장 구경시켜 주면서 골프라는 스포츠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명 먼저 티샷을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필자가 샷을 했다. 네 명의 샷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가 곳에 다시 모여서 다음 샷을 하는 스크램블 방식으로 골프를 했다. 골프의 경험이 있는 물보기 플레이어는 필자의 샷에 연실 "야! 이런 샷 골프 게임에서나 나오는 샷이야" 하며 좋아했고, 몇 번 필드 경험에 있는 사람은 "어! 이상하다 이것보다는 더 잘쳤었는데..." 라며 공을 잘쳐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골프장에 처음 나온 사람은 "야! 골프장 좋다. 이거 진짜 잔디야?" 하며 잘 관리되고 다듬어져 있는 잔디를 밟고

걷는 것 자체를 매우 좋아했다. 정상적인 골프 경기가 이루어지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실력의 네 사람들이 있었지만 9홀을 도는 내내 화기에애하게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말 그대로 골프를 통한 단합대회 그 자체였다. 골프채도 아무도 없어서 차 안에 늘 가지고 다니는 필자의 골프채 (2세트)로 네 사람이 사용했다. 어찌보면 골프채가 2세트 밖에 없어서 더 간편하게 라운딩을 할 수 있었는데도 모르겠다.

가족과 라운딩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골프 레슨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취미 골프로

서 라운딩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처음이다. 골프라는 것이 직업이 아닌 취미로서의 재미를 현장 실습한 기본이었다. 아직 파트타임으로 골프티칭을 하고는 있지만 풀타임 골퍼에서 파트타임 프로로의 전향을 맞본 묘한 기분이었다. 골프 없이는 살아가는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프로골퍼로 전향한지 7년만에 또 다른 도전으로 삶의 여정을 열고 있는 요즘,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서의 골프의 재미를 함께 해준 직장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청(靑)

“... 생명(生命)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하나님)가 모든 푸른 풀(靑菜)을 식물로 주노라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of life (on the ground) I (God) give every green plant for food.” - 창세기 1:30

하늘이 높고 푸르며 가을이 완연하다. 청(靑)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2015년도 대한민국 살림살이의 뼈대를 밝혔다. 취임 후 2년 연속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일 것이다.

국회 일정 내내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은 것도 이해적이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주머니를 닫아버린다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는 살려야 한다”고 힘줘서 말했다.

국회연설 중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라는 말을 59회나 썼고 이는 두 번째 많이 쓴 ‘국민’이란 단어(31회)의 두 배에 가까웠다. 경제 문제에 관한 박 대통령의 속내를 그냥 들 어낸 것. 반면 ‘세월호에 관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었다.

연설 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한 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 한 시간여의 회동에서 40분 이상을 새정치민주연합 문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말했다. 박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고 웃음으로 경청했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재연기(한미간)와 개헌문제, 카카오톡 감청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다소 냉정한 분위기였었다고 참가자들이 전하기도.

이날 경제관계 시정연설에 부합해서 여야 대표회의에서도 경제관련 법안의 국회처리를 간곡히 부탁했었다. “민간 부문에서 너무 힘이 빠져있어 정부가 돕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 힘주어 말했었다. 이와 함께 캐나다, 호주와의 조속한 FTA(자유 무역협정) 국회비준도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문희상 위원장은 경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는 동의했으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식 경기부양책엔 동의할 수 없다”고 뜻을 밝고 “FTA 처리에 따른 축산 농가 보조대책”을 요구하기도.

이에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관련법이 잘 처리돼 혁신의 길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했고 여야지도부는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야당지도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입을 모아 제기했던 이명박 정부 때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산업 부실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 받고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非理)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다른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었다.

야당은 또 최근 한·미 양국이 2015년으로 예정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한 것에 대해 야당은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또 한·미 연합사들 서울 용산, 미화력 여관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관련 협정의 중대한 내용변경이 생겼으므로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말 없이 미소로 답했다.

靑와대의 주인이 국회의원들과 이토록 오랜 시간을 같이한 것도 처음인데 그보다 같이한 시간의 3분의 2(60% 이상)을 야당에 귀 기울인 대통령도 박근혜(朴槿惠)靑와대 주인이 처음이다. 역사상...

靑: 東方木色동방목색 - 푸른 청. 靑 자를 풀면 1. 主: 君也군야 - 임금 왕과 2. 月: 肌也기야 - 살육. 두 글자로 합성된 글자.

‘임금님의 살고기’가 靑으로 표시된 것. 여기서 말하는 임금(君 또는 王)은 보통 인간들의 속세에서 王이나 대통령을 훨씬 넘어서는 임금, 즉 왕중왕(王中王)을 뜻한다.

아무리 권세 있는 왕이라도 육체가 죽으면 왕도 끝난다.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특히 사형을 받을 죄(罪)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묻는다. “네가 왕(王)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You are a King, then,” said Pilate. Jesus answered,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a King. In fact, for this reason, I was born and for this I came into the world,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 - 요한복음 18:37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덤에 “유대인의 왕(王)”이란 묘비를 붙인다.

죄 없는 王이 十字架(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주)의 진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해서 예수님은 “왕이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진리의 예수님).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God) except through Me. -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眞理), 그 자체인 것을 모르고서는 王보다 높은 주(주)님이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主: 主 義(義) + 土 흙도 - 번역하면 의(義)의 대궐(大闕)에 계신 하나님(神)이 흙덩이(土) 인간을 주관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변화능력을 아는 것”이 곧 진리(眞理: Truth)다.

이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罪(죄) 없으신데 ‘십자가 형(Crucifixion)’을 받으시고 부활: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셨기에 王에서 主로 승격하셔서 “하늘 위에 있는 나라의 王, 곧 王中王(왕중왕)이 되신 것.”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十를 떠나서는 죽은 후 부활에 이르는 진리를 맛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외 없으신 주 예수님이 왜? 十자가 형벌로 돌아가셨음을 가르쳐주시는 길이 곧 靑이다.

이 靑에 숨은 비결은 곧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靑이 되는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 마태 복음 22:37-40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靑에 이르는 十(십자가) 비법, 곧 진리의 정수이자 十자가의 색깔인 것을!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처방약보험(파트 D)의 도넛 홀이란?

대부분의 처방약보험은 보험혜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갭(Gap) 혹은 도넛 홀이라고 한다. 이는 도넛의 가운데 있는 홀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험혜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 도넛 홀이 시작되고, 끝나는가?

보험가입자가 1월 1일 부터 지출한 디덕티블과 약값의 합이 (이를 out-of-pocket costs라고 한다) \$2,960이 되기 전에는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다 이 금액을 넘게되면 도넛 홀이 시작된다. 즉 보험혜택이 중단되어 가입자 부담이 많아진다. 그러다 부담액수가 모두 \$4,700이 되면, 도넛 홀에서 나오게 된다. 그 후는 Catastrophic Stage라고 하여 코인슈어스와 코페이만을 내게 되어, 파트 D 보험을 갖고 있는 홍길동씨의 총 부담액 즉 디덕티블 \$320

에다 그간 지불한 코페이, 코인슈어스 등의 합이 \$2,960이 되면, 홍길동씨는 도넛 홀에 들어간다. 홀 내에서 구매하는 브랜드네임 약은 약 종류와 상관없이 2015년도에는 약 값의 45% (이를 코인슈어스라고 한다)를 내야 한다. 브랜드네임 약값이 \$60이라면 \$60의 45%인 \$27을 낸다. 홍길동씨가 홀에서 나올 수 있는 \$4,700은 다음과 계산된다. 도넛 홀 전에 \$2,960을 내었기에, 홀 중에 있을 때 \$1,740만을 지출하면 된다. 이 계산에는 홍길동씨가 자신이 부담한 액수 이외에, 제약회사가 부담한 액수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즉 \$27에다 \$30을 합친 \$57로 계산되는 것이다. 홍길동씨에게 유리한 계산 방법으로 인하여, 홍길동씨는 도넛 홀에서 빨리 나올 수 있게 된다.

예 2. 제네릭 약
홍길동씨가 제네릭 약을 사게 되면, 약 값의

65% 만을 내게 된다. 이 65%도 물론 도넛 홀 중 부담한 액수 계산에 포함된다.

‘Medicare & You 2015’ 라는 책자의 151 페이지 부터 151C까지에 여러 처방약 보험이 있고, 각 페이지마다 상단 오른쪽에 보면 ‘Coverage During the Gap’ 이라는 항목 즉 도넛 홀이 있다. 여기에 위에서 설명한 도넛 홀 중의 가입자 부담이 약술되어 있다. 일부 소수의 보험은 도넛 홀이 전혀 없거나 디덕티블도 없는 것이 있다. 따라서 약값 부담이 \$2,960을 상회하리라고 예상되면, 보험선택에 도넛 홀 조건과 보험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CA (오바마케어)에 의하여 도넛 홀 내에서 약값 부담이 매년 점차로 줄게 되어, 2020년부터는 도넛 홀 중에서 브랜드네임과 제네릭 모두 약값의 25% 만을 내게 된다. 이는 보험혜

택과 같아서, 도넛 홀 조항이 파트 D에서 없어지게 된다.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관련 서비스 그룹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Restaurant	SAT Academy	Business Consulting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320,000
Cambridge, MA
잘 운영되는 Japanese -
Restaurant
Beer and wine license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Dry Cleaner	Restaurant	Restaurant	Deli

\$180,000
Salem, MA
Downt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299,000
Northampton, MA
Restaurant w/ liquor license
Well maintained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Deli	Grocery	Jewelry Business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Full Plant Cleaner	Convenience Store	병원 건물 렌트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커머셜	비즈니스 빈자리	APT Rental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3 October 31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60

진한 닭육수와 부드러운 돼지고기 찹쌀의 만남

토토라멘(Totto Ramen)

169 Brighton Ave, Boston, MA 02134
617-202-5075
Tottoramem.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국인은 한국 라면이 가장 맛있다고 하지만 가끔은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올라간 일본식 ‘라면’ 이 먹고 싶을 때가 있겠다. 그럴 때는 토토라멘(Totto Ramen)을 추천한다.

하버드 애비뉴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토토라멘은 뉴욕에 1호점을 두고 있는 유명한 일본 라면 체인점이다. 보스톤 지점 사장인 니웬(Nghi Nguyen) 씨는 뉴욕에서 토토라멘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한다. 2년 동안 끈질기게 토토라멘의 대표를 설득한 결과 마침내 지난 5월 보스톤에 2호점을 차리게 되었다.

이곳은 돼지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라면 가게와는 달리 담백한 닭 육수를 사용한다. 실제로 ‘토토’ 는 일본말로 치킨이라는 뜻. 닭고기를 각종 향료 및 야채와 함께 끓이는데 최소 6시간 동안 우려내어 육수를 만든다.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 토토라멘만의 진하면서도 담백한 닭 육수다.

인기 메뉴로는 토토 스파이시 라멘(Totto Spicy Ramen, \$11)과 메가 라멘 Mega Ramen, \$15.50)이 있다. 구운 닭고기가 올라간 토토 스파이시 라멘은 매콤한 국물이 일품이다. 메가 라멘은 훨씬 큰 그릇

에 푸짐한 찹쌀(양념하여 구운 돼지고기)과 각종 야채가 라면과 함께 나온다. 특별히 메가 라멘은 마늘 향이 나는 진한 육수를 사용해 아시아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로 등극했다.

매운 맛을 좋아하는 손님들은 엑스트라 스파이시 라멘을 주문할 수 있다. 매운 소스가 따로 나와 원하는 만큼 추가해서 먹으면 된다. 니웬 사장 말로는 미국인들도 매운 라멘을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는 더 맵게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처음 개업했을 때보다 메뉴들이 10배나 더 매워졌다고 한다.

맛갈스러운 에피타이저도 토토라멘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아보투나(Avo Tuna)는 신선한 아보카도 위에 토치(Torch)로 살짝 구운 참치가 올라가며 토토라멘의 특별한 소스와 파가 곁들여져 나온다. 부드러운 번과 두툽한 삼겹살 구이가 잘 어울리는 차슈번(Char Siu Bun)도 이곳의 대표적인 에피타이저다.

니웬 사장은 토토라멘이 손님들에게 친근하고 편

안한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집에서 피자마를 입고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는 라멘가게이고 싶다” 고 그는 말했다.

토토라멘에서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미



리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영업 시간은 오후 5시에 문을 여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정오부터 밤 11시까지며 4시에서 5시 사이는 런치 브레이크(Lunch Break)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정보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벨라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철학자협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주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인트앤서니회	508-826-5270
이탈리아어동맹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어언어동맹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베냐민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학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몰몬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몬교회	617-792-8780
그레시안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턴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턴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턴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누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3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주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말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모의투자)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프론티어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6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17-860-0171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학(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신정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안힐링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부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아시덴탈그룹	781-273-2233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간병인 구합니다
8pm - 8am 까지 주 5일
T. 781-883-7970 (오후 5시이후 연락)

미용가위, 애견가위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가위 가는 기술 전수합니다.
T. 917-513-7771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한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벌링톤 물안 헤어약세사리 가게
풀/파트타임 일하실 분
T. 312-350-0159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딜리버리 및 영업사원 모집
매사추세츠/뉴햄프셔지역 가족세탁 공장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딜리버리 및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연령제한 없음, 미니밴 소유자.
TEL 929-600-3512

N [매 매]
슈리페어, 알터레이션 샵
이주 관계로 급매 하고저 합니다
미드타운에 있는 고급동네이며 70년 전통있는 가게입니다
일감이 많은 바쁜 가게 임
자세한 사항 문의는 연락 주세요
T. 404-751-8889

N [구인]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실 사이딩쿠루 구합니다.
T. 847-307-1812

렉싱턴 한식/일식 식당
풀/파트타임 웨이터/웨이트레스구함
T. 781-860-0171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마사지구인]
만테나 빌링스에서 가족같이 일하실 성실한 마사지사 구합니다.
안전한 곳이고 숙식제공 되고 수입 보장 함.
T. 406-259-6211

N [구인]
하와이에서 제일 안전한 맛사지 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아가씨를 구합니다
월수입 3만 - 5만 가능 신분 확실한 분
T. 1-808-675-1022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세탁소 팝니다. 부유한 동네 Drop-Store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T. 857-636-2611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 [구인]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 케비넷도어, 트림, 유
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지역 포함.
T. 952-292-6090

N [호텔직원구인]
사바나지역(Savannah, GA)
.룸서비스(여자)
.하우스맨(남자)
.오버나이트서비스맨(남자)
.게스트서비스맨(남자)
.전직원 숙박제공
시간당 \$9.50부터
주 40시간제
T. 678-689-7751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故 신해철,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2일간 1만여명 조문

(서울=뉴스1스포츠) 윤한솔 기자 = 고(故) 신해철의 마지막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늦가을 찬바람도 마왕을 그리워 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조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반인 및 고인의 지인 등 많은 조문객들은 일찌감치 병원에 도착, 빈소가 마련될 시간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온 이는 방송인 허지웅과 가수 이승철이었다. 일찌감치 빈소를 찾은 두 사람은 고인의 넋을 기린 뒤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 가수 조용필도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한 후배의 빈소를 찾았다.

이 외에도 고인과 콘서트 등을 통해 친분을 다진 가수 싸이를 비롯해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그룹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도 빈소를 지켰다. 특히 자리를 뜨지 않고 빈소에 머물던 신대철은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밖에도 김장훈, 김현철, 이승기, 백지영, 에픽하이, 태진아, 임창정, 임백천, 강수지, 조갑경, 유재석, 이광수, 씨스타 등 선후배 연예인들이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뒤이어 검은 정장차림으로 등장한 윤도현 밴드 역시 지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후 곧장 빈소로 향했다.

직장인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빈소 앞에 붐비기 시작했던 오후 6시30



분 무렵, 빈소에서는 고인의 생전 바람대로 '민물장어의 꿈' (1999)이 울려 퍼졌다. 이에 지인과 팬을 비롯한 조문객들은 한 번 더 눈시울을 붉혀야 했다. 한 조문객은 마왕을 떠나보내기 힘든지 조문을 마치고 나와서도 빈소 앞을 떠나지 못하며 오열했다.

일반인 조문객들의 끝날듯 무렵, 그룹 M.I.B 강남도 장례식장을 찾았다. 또 박경림도 조문을 마쳤다.

밤 10시경, 그룹 부활 김태원이 빈소에 등장했다. 10시30분 경에는 가수 이현우, tvN 'SNL 코리아' 유병재 작가 등도 고인을 찾아 넋을 위로했다.

후배가수 지오디 역시 밤 11시 35분경 빈소를 찾았다. 이날 다섯 명의 멤버들은 '2014 SIA' 참석 후 곧바로 빈소가 마련된 병원으로 이동, 고인의 넋

을 기렸다. 29일에도 서태지-이은성 부부, 산울림 김창완, 전인권, 인순이, 유영석, 윤도현, 김종서, 김구라, 양동근, 이적, 바다, 케이윌, 김재중, 문희준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았다.

연합뉴스는 29일까지 모두 1만여명이 신해철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신드롬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앞서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지난 22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7일 저녁 8시 19분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 9시에 엄수된다.

hs0514@news1.kr

대학가요제, 신해철 추모 무대 꾸민다

마무리 곡은 〈그대에게〉

(서울=뉴스1스포츠) 이한솔 기자 = 박대학가요제회가 고(故) 신해철 추모 무대를 꾸민다.

대학가요제회는 오는 11월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14 대학가요제 포에버' 콘서트에서 고 신해철을 추모하는 무대를 갖는다.

고인은 지난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밴드 무한계도 멤버로 출전해 '그대에게'로 대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에 대학가요제 출신들은 신해철의 데뷔곡이기도 한 '그대에게'를 콘서트 엔딩 곡으로 채택해 출연진 전원

이 합창하기로 결정했다.

또 마치 신해철도 함께 공연하는 듯 당시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신해철과 무한계도의 공연 동영상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앞서 대학가요제회 회원들은 지난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았다. 대학가요제회 측은 "신해철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대학가요제회에 열심히 동참했던 고인이 무대에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대에게' 노랫말처럼 신해철은 '대학가요제' 곁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hslee61@news1.kr



미생 이성민, 시청률 공약 이행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미생' 이성민이 시청률 공약 이행에 나선다.

29일 tvN 금토드라마 '미생' 측은 공식 페이스북에 "내일 (30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역 5번 출구에 '미생' 배우 L. 출몰한다 함. L.: 이성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미생'에서 오상식 역을 맡은 이성민의 개인 포스터 사진으로, 그 밑에는 '배우 이성민의 프리 허그. 대한민국 직장인 파이팅'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어 '30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역 5번 출구 앞 10M 지점. 오과장님의 에너지 (feat. 헛개수 & 김밥) 받고 출근하세요'라고 적혀있어 보는 이들의 기대감을 불러 모았다.

앞서 '미생'의 주연 배우 6인(임



시완, 이성민, 강소라, 강하늘, 변요한, 김대명)은 '미생' 시청률 3% 달성 시 간식 및 치킨 맥주 쏘기, 프리허그 등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미생' 시청률 공약 이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미생', 드라마 완전 좋아", "'미생' 이성민, 진짜 하는구나 대박이네", "'미생' 이성민, 직장인들을 위한 시청률 공약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uyoung0403@news1.kr

MC몽, 화려한 피쳐링 군단 새 앨범 'Miss me or Diss me'

타이틀곡은 '내가 그리웠니'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MC몽 '내가 그리웠니'가 공개 전임에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MC몽 소속사 측은 29일 "MC몽 정규 6집 앨범 'Miss me or Diss me'(부제 그리움) 타이틀곡이 '내가 그리웠니'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어 "13곡 모두 작사를 한 MC몽의 이번 앨범은 5년 공백기 동안의 MC몽의 이야기들로 그리움과 희망,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가 그리웠니'는 매드소울차일드의 진실이 피쳐링한 곡이다. MC몽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웅장한 스케일의 스트링과 평기한 일렉 기타 루프, 경쾌한 리듬이 그와 상반되듯 흐르는 감성적인 피아노와 애절한 보컬이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

앞서 MC몽의 이번 정규 6집 앨범에 백지영, 리쌍 개리, 허각, 린, 범키, 에일리, 걸스데이 민아, 씨스타 효린 등 막강한 피쳐링 군단이 참여한다고 알려져 기대를 모으

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앨범명에 대해 "앨범명 'Miss me or Diss me'는 '그리움과 미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으로 사실상 진한 그리움을 내포한 의미다"라며 "일각에서 해석한 자극적인 어조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뒤 그리움과 미움이 공존하듯 강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음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MC몽은 11월3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규 6집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MC몽 내가 그리웠니 타이틀곡 선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MC몽 내가 그리웠니, 어떤 분위기일지 기대된다", "MC몽, 이번 곡도 좋을 것 같다", "MC몽 예전 느낌 날까", "MC몽 정말 오랜만인 듯", "MC몽 최근 모습도 궁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0월 20일 ~ 10월 26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1.5%



2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5.2%



3위 KBS2 일일드라마 **빠꾸기 등지** 22.2%

- 4 KBS1 KBS9시뉴스 18.3%
- 5 KBS2 개그콘서트 16.1%
- 6 KBS2 해피선데이 15.4%
- 7 MBC MBC아침드라마(모두다김치) 15.0%
- 8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4.7%
- 9 MBC 주말특별기획(전설의마녀) 14.2%
- 10 KBS1 가요무대 13.9%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헤븐엔딩 (Feat. 조원선 Of 롤러코스터) 에픽 하이
- 02 BORN HATER 에픽 하이
- 03 12시 30분 비스트
- 04 화장 지웠어 (Feat. Zion.T, HA:TFELT) 개코
- 05 스포일러 에픽 하이
- 06 손대지마 에일리
- 07 시간과 낙엽 악동뮤지션
- 08 RICH (Feat. 태양) 에픽 하이
- 09 또 싸워 (Feat. 윤하) 에픽 하이
- 10 그게 나아 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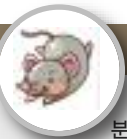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9	8	1		7
8					7	6		
						9	8	5
	4	5	2					1
7								9
9					4	2	5	
4	7	6						
		3	6					2
2		1	5	4				

11월 2일 - 11월 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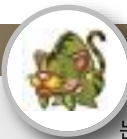
쥐띠 |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 운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위기가 바뀌면서 막혔던 일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인맥을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득의 결과의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 애정: 꼭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멀어져 죽는 줄만 알았는데 그 손을 놓는 순간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 5일 길일. 4,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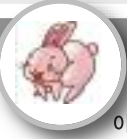
소띠 |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 운수: 단 하루라도 모든 걱정이나 근심은 접어두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좋은 생각도 떠오를 것입니다. ● 금전: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돌아오는 일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 애정: 부부화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부부가 화합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 6일 길일. 5, 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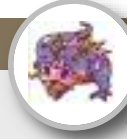
범띠 | 가능성이 안 보이면

● 운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잘 극복해야 합니다. ● 금전: 가능성이 안 보이면 포기하도록 하세요. 이미 손해 본 것이 복구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좋아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는데 잘해주니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4, 7일 길일. 6, 8일 주의.



토끼띠 | 힘과 지혜가 있어야

● 운수: 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되려면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 금전: 가까이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속사정을 표현해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보세요.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 8일 길일. 4,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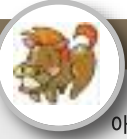
용띠 |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 운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나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일이 성사가 되기 전에는 입을 꼭 다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다 된 일이 막판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 애정: 불만족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평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3, 4일 길일. 2, 8일 주의.



뱀띠 | 현실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 운수: 꿈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금방 사라질 무지개라면 곤란합니다. 현실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주먹구구식 일처리나 어설픈 임기응변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 돈도 들어오고 살 길이 열립니다. ● 애정: 정말 듣고 싶은 말을 원하는 사람에게 듣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7일 길일.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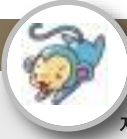
말띠 | 얼마든지 기회가

● 운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 금전: 실패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 노력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현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하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8일 길일. 2,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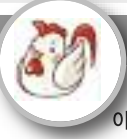
양띠 |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질

● 운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보세요. 전보다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 금전: 완벽하게 하려다가는 끝이 없는 법이니 매사에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빈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일을 잘 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 애정: 누구나 어느 날 불쑥 동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무조건 빠져들어 갈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7일 길일. 2, 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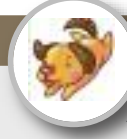
원숭이띠 | 시야를 넓혀야

● 운수: 우물 안 개구리는 바깥세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 금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 애정: 꼭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야 고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더 큰 고문이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5, 6일 길일. 3, 4일 주의.



닭띠 | 마음을 그때그때 전해야

● 운수: 주위의 도움을 사양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 금전: 열심히 하느냐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는 한만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애정: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그때그때 전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6일 길일. 3, 4일 주의.



개띠 | 새로운 도전이 필요

● 운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는 정작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 애정: 항상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한쪽은 이미 끝났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서로가 힘들어지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돼지띠 | 좋은 마음으로 보면

● 운수: 웬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 금전: 당장은 금전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 애정: 미다미다 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8일 길일. 3, 6일 주의.

클라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2위 선정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모델 겸 방송인 클라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2위에 선정돼 화제다.

미국의 패션 매거진 '모드'는 28일(한국시간) '2014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을 공개했다.

모드 측은 "클라라는 아시아 최초로 모드 매거진 표지모델로 선정될 만큼 매력적인 외모와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에서 모델, 배우, 가수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동하면서 클라라만의 밝고 다양한 이미지를 선보인 것이 미국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1위는 미국의 모델이자 배우인 타니아 마리 커린지가 차지했으며 3위는 크리스티나 마리아 사라켓, 4위 제시카 알바, 5위 알렉산



드라 엠브로시오, 6위 스칼렛 요한슨, 7위 비욘세 등이 뽑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오 대박", "세계

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클라라 축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2위는 과분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유재석 커피콩 시계 인기 폭발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유재석 커피콩시계가 화제가 되고 있다.

방송인 유재석은 지난 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400회 특집 '비긴 어게인' 두 번째 이야기에 커피콩 시계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유재석이 착용한 이 시계는 일명 커피콩 시계로 불리는 모던트워치다. 이 시계를 구입하면 총 금액의 30%가 몽골 고아원과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등에 기부된다. 가격은 약 40달러(한화 약 4만4천원)이며 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국내에 오프라인 매장도 있다.

현재 커피콩시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입고돼



있는 커피콩시계는 모두 품절돼 11월 이후에 재입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석 커피콩시계에 누리꾼들은 "유재석 커피콩시계, 나도 사야지", "유재석 커피콩시계, 좋은 시계다", "유재석 커피콩시계, 사이트 접속 폭주했네" 등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신동엽 이유리, '세바퀴' 새 MC 발탁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신동엽 이유리가 '세바퀴' 새 MC로 발탁됐다.

방송인 신동엽과 배우 이유리는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 MC로 매주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세바퀴'는 최근 변화를 맞이했다. 기존 MC인 이휘재, 박미선이 오는 30일 녹화를 끝으로 6년 만에 하차하고 신동엽과 이유리가 새 MC로 기존 MC인 김구라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신동엽은 특유의 19금 입담으로 '세바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유리는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연민정 역으로 국민약녀에 등극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화제를 모은 것에 이어 이번에는 예능 MC에도 도전하게 됐다.

신동엽 이유리 출연에 누리꾼들은 "신동엽 이유리, 호흡 기대된다", "신동엽 이유리, 두 사람 잘 어울리는 듯", "신동엽 이유리, 분위기 화기애애해질 것 같다", "신동엽 이유리, 분방 사수해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황찬성·송새벽·윤상현 뭉친 '덕수리 5형제' 12월 개봉 확정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30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윤상현, 송새벽, 이아이, 황찬성, 김지민, 이광수 등이 출연하는 영화 '덕수리 5형제'가 12월4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덕수리 5형제'는 만나기만 하면 물고 뜯고 싸우는 덕수리에 사는 5형제가 부모님이 실종되자 힘을 합쳐 찾아 나서서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다.

윤상현은 극중 5형제에서 유통성제로의 바른 생활 사나이인 장남 수교역을 맡았다. 힘은 세지만 섬세한 소

녀 감성을 갖고 있는 둘째 동수 역으로는 송새벽이 출연하며, 형제 중 청순한 뇌를 자랑하는 셋째 현정 역은 이아이가 맡아 미모와 매력을 한껏 발산할 예정이다.

포기를 모르는 넷째 수근 역으로 2PM의 황찬성이 출연하며, 5형제 중 가장 말쑥한 막내는 아역배우 김지민이 맡았다. 어리바리한 경찰 역으로 이광수가 출연해 코믹 군단에 정점을 찍었다.

lee1220@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19)>

100년을 이어온 김씨와 허씨의 우정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수로왕 납릉 가락루

지난 칼럼에서 한선제(漢宣帝)가 허광한(許廣漢)의 딸 허평군(許平君)을 취해 효선황후(孝宣皇后)를 삼았는데 곽광의 처 현아가 이를 시기해서 효선황후를 독살했고 이들의 죄상을 허광한과 김일제의 조카 김안상(金安上)이 밝혀 내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곽씨 일가의 전횡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왕씨, 김씨, 허씨가 바로 그들이다.

김안상은 도성후(都城侯)로 그 아들 김창은 허평군 소생인 유석(후일의 원제: 元帝)의 스승이 되었고 김일제의 현손 김흠(金欽), 김준(金遵)은 제후로 봉해지고 구경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허광한 허씨(許氏) 집안은 독살당한 허평군 공애황후에 이어 한성제(漢成帝)에게 허가(許嘉)의 딸이 간택되었다.



수로왕 납릉 정문: 쌍어문 문양이 눈에 띈다

이처럼 김씨, 허씨 집안은 한나라 조정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중요한 사실은 이들 두 집안이 공동의 목표를 두고 힘을 합쳐 왔다는 것이다. 한선제 때 김안상과 허광한이 연합하여 곽씨 세력에 대항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역사학자 문정창 씨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김륜의 5대손, 김안상의 4대손, 김창의 3대손 김탕(金湯)이 왕망의 신(新)나라가 망한 다음에 김해 지방으로 도피하여 금관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왕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수로 왕의 왕후는 성이 허(許)씨인 허황옥이다. 여기서 우리는 허황옥 왕비의 출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허광한, 김안상 양가에서 이미 김수로 왕과 허황후를 맺어주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삼국유가에 기록된 “가락국기”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허황후가 인도가 아닌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가락국기” 시작이 아래와 같다.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란 없었다. 그리고 군신(君臣)의 칭호도 없었다. 이럴 때에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오도간(五刀干), 유수간(留水干), 유천간(留天干), 신천간(神天干), 오천간(五天干), 신귀간(神鬼干) 등 아홉 간(干)이 있었다.



허황후 가족이 지나간 지역에 의례 나타나는 쌍어문(납릉 정문)

이들 추장들이 백성들을 통솔했으니 모두 1백오 7만 5천명이었다. 후한(後漢)의 광무제 18년(AD42) 계육일에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2~3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9간들이 대답한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냐



김해 구지봉에 있는 보주태후 허황후릉

?” “구지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온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되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라 하면서 춤을 추어라”면서 가락국기가 시작된다.

이곳에 나타난 주인공(김수로 왕)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구지봉이 어디냐고 묻고 있으니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 틀림없다.

금관가야를 건국하고 6년 뒤인 AD48년에 9간들이 건의하기를 자신들의 딸 중에서 제일 예쁜 처녀를 골라 짝을 삼으라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으로 나에게 짝을 지어 왕후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경들은 염려 말라”며 거절하고는 유천간에게 명해서 배와 말을 준비하여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다.

즉 김수로 왕은 허황후가 언제 도착할 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만약 허황후가 인도에서 출발했다면 그녀의 도착이 언제라는 것을 짐작 못했을 것이다. 허황후는 김해에서 그리 멀



구지봉

지 않은 곳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그 사실을 벌써 알고 있어서 유천간을 내보낸 것이다.

허황후를 수행한 두 사람은 천부경(泉府卿) 신보(申輔)와 종정감(宗正監) 조광(趙匡)으로 이름과 벼슬이 중국 이름이고, 가지고 온 선물도 금수능라, 의상필단, 금은주옥, 한사잡물(漢肆雜物)로 모두 중국에서 나는 귀중품이라서 허황후가 중국 어디에서 온 것이 확실하다.

특히 ‘한사잡물’은 한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 물건들이라는 뜻이니 허황후가 떠난 지역이 중국이나 중국인근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허황후가 도착한 후 이틀 후에 사공 15명에게 각각 쌀 10석과 베 30필씩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만약 이들이 인도에서 왔다면 먼 항해를 끝내고 고작 2일만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미루어 이들이 가까운 중국 근처에서 왔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허황후가 허광한(許廣漢), 김안상(金安上)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4) 주식시장 하락

주식시장을 상징하는 다우 존스가 500포인트씩 하락하면 투자자 마음 역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은퇴가 목전에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더욱 심해집니다. 유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깊고 크게 심호흡한 다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일부는 현재가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5년전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금융 시장이 거의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를 비롯하여 워싱턴 뮤추얼, 등이 파산되었고 최대 보험사인 AIG도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금융 신용시장은 운영 불가였습니다. 지난 수요일(10/15/2014) 460포인트 하락으로 투자자 마음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500 포인트가 여러 번 내려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난 3년 전 주식시장과 비슷합니다. 2010년 주식 시장 활황기를 맞은 후 2011년 8월 스탠다드 푸어 회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낮추었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새해부터 발생한 수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2012년 13%와 2013년 30%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 하락에는 항상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합니다. 유럽 국가의 경제, 중국의 부동산 거품, 에볼라 전염병, 아이시스, 등을 말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때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불안한 마음에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팔기 전까지는 종이에 나타난 손실이지만 일단 팔고 나면 진짜 손실입니다. 손실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다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가를 결정해야 하

기 때문입니다. 놀라움에 팔고 나온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싼 가격을 주고 시장에 다시 들어갑니다.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악순환은 투자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회사에서 S&P 500을 198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35년 동안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한 단 5일 동안 나의 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지 않았다면 시장에 계속 투자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무려 35%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그 많은 나날 중 주식이 상승할 5일을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지구 상에 없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욕심과 두려운 마음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후회합니다.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100%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이래저래 후회만 합니다. 사실 후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돌아오는 수익에 대해서 많이 집중합니다. 무추월 펀드를 선택할 때 먼저 고려하는 것이 과거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보상과 위험성(reward and risk)을 항상 동반합니다. 사실 수익보다는 위험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투자입니다.

100불이 50% 하락하면 50불이 됩니다. 50불이 다시 50% 증가하면 75불만이 되지 않습니다. 100% 증가해야만 본전이 됩니다. 금융위기(2008)로 폭락한 자산이 본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주식과 채권에 반반으로 형성되었던 포트폴리오는 원금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기간은 18개월 걸렸다고 뱅가드회사에서 발표했습니다. 투자할 때 수익보다 투자 위험을 먼

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모든 미디어(신문, TV, 라디오, 인터넷)는 순간마다 뉴스를 전합니다. 암울한 소식뿐입니다. 내일을 희망해 보지만 결과는 같은 내용입니다. 투자한 것이 후회막심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주식시장 상승으로 주가조정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주가조정이 언젠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이 주식시장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언제 그리고 얼마만 한 크기로 오를지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 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며 결정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본인의 나이, 자산 규모,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양도소득세

한국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소득

한국 거주자인 김백두씨는 투자 목적으로 보스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주택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미국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주는 한국 거주자(미국의 비거주자)의 미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미국의 세법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 - 즉,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 을 외국투자자의 세법상 지위나 그 나라와의 조세조약의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미국 내 소득(U.S. source income)으로 봅니다. 이는 비거주자의 미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먼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미국의 비거주자는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때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그 과세대상 소득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and business)’ 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으로는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면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과세되며, 그렇지 않다면 소득의 30%(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순한 부동산 임대행위는 미국내 사업으로 인정 안돼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단순한 임대행위는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passive activity). 따라서 단순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임대료, 관리비, 수리비...등등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의 3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 : lessee 또는 property manager)가 해야하는데,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모 든 책임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져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원래의 세금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나 이자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가 Form W-8BEN을 제출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미국내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30%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미국 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선택할 수 있음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30%를 원

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소득을 미국 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선택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이 규정은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임대소득을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신고하면,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산됩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각종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을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어 총수입금액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부터 16개월이내에 신고하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의 미국내 부동산(real property)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부동산 양도소득을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또는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으로 구

분하여, 단기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인 10%~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양도소득인 경우 최대 15%(고소득자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기간 동안 비용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미환수된 \$ 1250 이익(unrecaptured \$ 1250 gain)’ 규정에 따라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수자(transferee)는 10% 원천징수 해야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대가 지급시 그 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한 후, 이를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그런데 주거 목적으로 비거주자로부터 \$300,000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IRS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며, 대가의 10% 원천징수 금액이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을 경감해 주는데, 원천징수금액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 또는 대리인이 IRS에 경감 신청을 한 후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양도자가 본인의 세금신고 시 정산받게 됩니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진짜 멋진 수수함 속에 있음을...

가끔 지나는 길에 뒤돌아 다시 보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눈에 띄는 화려함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수함에 끌려서일 게다. 요즘은 별 것마다에 끼워 넣고 명품, 명품 하는 그런 명품이 아니어도 좋다. 남을 의식하지 않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흘렀을 뿐일 게다. 그렇다, 굳이 애써 꾸미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 몸과 마음에 배인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단아한 모습일 게다. 제 아무리 명품을 입고 두르고 쓰고 신고 들었어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아 어색하면 남의 것을 빌려 입고 두르고 쓰고 신고 든 것 같은 모습인 것을 말이다. 멋진 자연스러워야 더욱 멋지지 않던가.

사람마다의 개성은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각양각색으로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개성이 어우러져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굳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한다는 식의 방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 싶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나의 형편이 가질만해서 선택하는 것이면 좋으려만 남을 의식해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고 허욕이 아닐까 싶다

. 무엇보다도 자신과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신을 신어야 제일 편안한 것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던가. 무엇이든 내게 어울려야 편안한 것이다.

한때는 그랬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을 방문하면 도착하는 그 날부터 한국인의 나이별 유행이 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리곤 했었다. 오가는 남녀의 옷도 옷이러니와 여자들의 화장 역시도 비슷비슷한 모습에 자신만의 개성 없이 우르르 따라 하는 식의 멋 내기가 내게는 참으로 쓸쓸하게 다가오곤 했었다. 어쩌면 나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먼 곳에 살다가 한 번씩 찾아가기에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유행의 흐름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자신과 어울리는 멋을 찾는 것이 센스이지 않을까.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 이처럼 나를 모르니 남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던가. 삶에서 가끔 나 자신의 내면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을 가질 수 있다면 남을 의식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내 속의 허함이 어찌면 아우성치다 참을 수 없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네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늘 허기지고 맥이 떨어지는 그 무엇이 바로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은 아닐까.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공적인 것은 마음의 평온함보다 불안함으로 다가온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치장하고 꾸민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든 편안하지 않고 불편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불안한 것처럼 균형이 필요하다. 옷이든 사람이든 간에 조화를 이뤄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자신에게도 그러하거니와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편안함을 주어 좋다. 눈에 보이는 밖의 치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치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연스러움이란 내면의 것이 차오르면 저절로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진짜 멋진 수수함에 있음을 세상 나이 오십의 언덕에 올라서야 깨달아 간다. 어려서는 남을 의식하고 많이 살았다. 결혼해 연년

생으로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이 많이 찐 탓에 몸의 살을 뺄 생각보다는 몸을 가리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모른다. 키가 작은 편이니 신발 굽이 높은 것을 늘 찾고 신었으며 남을 의식하며 한껏 멋을 냈었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며 하나 둘씩 나의 치장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것이 그럴 것이 산을 오르면 살찐 것을 감출 수도 없거니와 등산화를 신으며 작은 키를 더는 키울 수 없는 까닭이었다.

옛말에 '항 썬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썬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제아무리 밖으로 치장하고 한껏 멋을 내도 그 안의 것은 자신이기에 내면의 것을 감출 수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밖의 보여지는 것보다는 안의 것을 더욱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상 나이 오십의 언덕에 오르고 보니 더욱이 그런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난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멋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남을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를 순수한 나를 그대로 놔두고 흐르는 데로 바라다 봐주는 일이 진정한 멋이고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한담객설閑談客說:
꿀향기는 겨울에 짙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빛줄기가 굵었다. 그리고 쏟아져 내렸다. 바람은 거렸다. 언제 떨어질까 망서리는 잎사귀를 훑었다. 땅에 닿기 전에 춤추듯 날려 떠나갔다. 이미 떨어졌던 잎사귀는 쉽게 나를 수 없었다. 물에 젖은 땅이 놓아 주지 않았다. 덕분에 날이 서늘해졌다.
한 사나흘, 왜 가을비가 이다지도 세차게 내리든지. 집안은 두루 안녕하신지.
김종필 전 총리를 봤다. 신문 사진에서 그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그가 했다는 자의 반 타의반이란 말을 떠올렸다. 몽니란 말도 달려 나왔다. 그가 말을 잘 만들어 내는데, 이런걸 촌철살인이라 하던가. 한일회담 당시 일게다. 그가 한국 회담대표였다. 그런 그를

보고 나이들어 노련한 일본상대가 한마디 했다. '젊은 사람이 똑똑하다.' 액면 그대로 칭찬이라 하기에는, 속이 훤히 보이는 말이다. 애송이와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찝찝하다는 말일게다. 세월이 한참 흘러, 젊었던 김종필씨가 나이들어 한 말이 상서롭지 않다.
'나이 70세, 마무리할 때 서쪽 하늘을 별걸 게 물들이고 싶은 욕심은 있다.' 채근담에서 한 구절을 떠올린다. 즐겨 읽는 구절이다.
하루해가 이미 저무니 노을이 아름답고, 한 해가 이제 저물려니 새삼 꿀 향이 짙구나. (채근담 前 199)

한국 모 국회의원이 자니윤에게 한마디 충고했다. '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집에 가서 애나 보라' 고 말이다. 아침에 뜨는 해는 아름답다. 하지만 저녁 지는 노을도 만만치 않다. 붉게 물든 석양은 현란한게다. 꿀향기는 한 겨울 눈속에서 그 향기를 뿜어낸다. 한창 추울 때에 향내가 짙다는게다. 다른 과일과 다르다. 그리고 보니 손에 짤수 있는 그 밀감은 겨울에 먹는다. 겨울은 한해의 막바지다.
몇 해 전 자니윤이 그의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한 적이 있다. 어눌하지만 낮은 소리로 던지는 그의 조크에 한참을 웃었지 싶다. 조영남이 여전히 출썩일 적이고, 배철수가 아

직 젊어 음악을 맡았다. 그게 벌써 몇해 전인가. 그도 늙기는 늙었고, 조영남과 배철수도 나이들어 간다. 하지만 여전히 왕성하다.
나이 들면 기억력은 떨어지고, 기력은 예전만 못하다. 그런데 지혜는 늘어난다. 젊은이가 갖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눈은 훨씬 깊다는 말이다. 설혹의원 그건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나도 알 듯 싶은데.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 후 2:15, 공동번역)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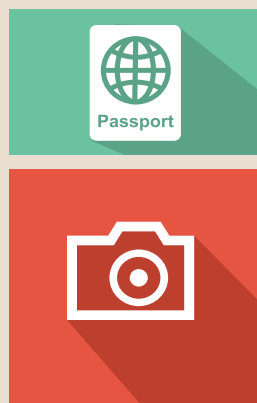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4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馬上六技(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다섯째로는 격구(擊毬)다. 먼저 무예도보통지의 내용을 옮기기 전에 일반적인 격구에 대해서 먼저 고찰해 보기로 한다. 격구라 함은 보통 '마상격구'를 가르키며, 이 마상격구는 현대의 폴로(Polo)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격구는 중국을 통해서 삼국시대에 전래되었다고 보고 있다.⁸⁶⁾ 마상격구는 페르시아 지방(현 이란)에서 발생하였으며 서양으로 전해진 유희는 현대의 폴로로 발전하였고, 동양으로 전해진 그것은 격구로 발전되었다. 페르시아 지방에서 시작된 격구는 중국의 서장(티베트) 및 인도를 거쳐 당나라에 전래되어서 '격구(擊毬)'라고 불리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고구려와 신라로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발해와 후삼국 시대에도 격구놀이는 성행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왕으로부터 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몇 가지 변형된 유형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즐긴 무예이자 오락이었다.

격구는 타구(打毬), 격구희(擊毬戲), 농장희(弄杖戲), 격봉(擊棒), 봉구(捧球), 봉희(捧戲), 또는 공치기, 장치기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상격구 뿐만 아니라 보

격구(步擊毬)도 대단히 성행했는데 보격구는 궁중의 아녀자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널리 전파되어 즐기곤 하였다. 보행격구는 격방 또는 장사라고도 불리었다. 이 보행격구는 현대의 골프(격방, 타구, 봉희), 필드하키(장시, 장구) 또는 축구와도 비슷한 유희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국을 하였다는 사실(史實은 김춘추가 장가든 사실만 부각되어 무예나 유희면을 소홀히 하기 쉬운 장면이지만 이 내용이 마상이었는지 보행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격구와 유사한 놀이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유득공이 쓴 '발해고(渤海考)'에 따르면 발해의 왕문구(王文矩) 일행이 889년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일왕이 보는 앞에서 격구를 시범했다는 기록은 당시 발해에서 격구가 대단히 성행했으며, 발해가 일본에 격구를 전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후삼국시대에도 격구가 유행했음이 고려사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이 즉위한 해 9월에 상주의 적사 아자개(아자익)가 사자를 보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그를 맞이하는 의식을 구정(楸庭⁸⁷⁾)에서 행하였다. 또한 태조2년에 아자개 일행의 환영식을 격구장에서 했다. 이 같은 기록들로 볼 때 후삼국시대에 격구가 무사들이나 귀족들 가운데서 빼

어 놓을 수 없는 습(習)무(武)나 유희(遊)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의 창건과 함께 왕궁에 격구 전용구장이 있었음은 왕건이 격구를 잘하고 좋아하였으며 당시의 격구의 성행을 미루어 짐작케한다. 그 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들을 보면 왕들과 왕족 그리고 귀족과 무사들이 격구를 즐겼다. 특히 의종은 일반 무술뿐만 아니라 격구에도 능숙했으며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는 무관들의 무예를 연마하는 군사적인 목적외에도 격렬한 유희적 마상놀이로 대단히 성행하였다. 그리고 고려 말엽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일반 백성들에게도 전파되어 전국적인 행사로 단오절에는 왕이 참관하는 대규모의 격구대회가 열렸다.⁸⁸⁾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격구는 성행하였다. 역성혁명으로 왕조가 바뀌어도 무인이며 격구의 달인이었던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격구의 호응도는 한층 더 높았다. 또한 그의 아들 이방원(3대왕 태종)과 조선을 건국한 중추세력들이 모두 즐겼던 유희였고 습무였기에 격구는 더 유행하였고 격구술은 더욱 발전되었다. 세종때에는 격구의 무예성을 중시하여 무과의 전시과목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무과 응시자뿐만 아니라 문무고관은 물론 많은 백성들이 즐겼기에 일부 염려하는 신하들이 격구경기의 사치성을 이유로 이를

국법으로 금지하지는 의견을 상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임금 세종은 "격구는 본시 무예를 연습하기 위함이고, 노는 것이 아니다. 무예를 연습하는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일부 신하들의 우려를 잠재웠다. 또한 "병조에 아뢰기를 고제를 삼가 살피니 당의 격환을 곧 황제가 만든 축국의 유제이다. 그런 이유는 다 놀이로써 무예연습을 하는 것이다. 격구를 잘하면 말도 잘타고 창도 잘 쏜다. 이제부터 무과에서 격구로써 시험을 보아 인제를 뽑으라" 하였다. 실로 세종대왕의 치세에는 격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으뜸가는 신하들과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였다. 다음에는 최초의 한글 서사시/악장 용비어천가 속의 격구를 따라가 본다.

86)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는 주장도 있다.

87) 왕궁내에 있었던 격구 전용구장

88) 조선왕조실록(태조1권, 영인본 1책4면)에 보면 고려 공민왕5년(1356년)에 태조 이성계가 22살에 관직에 처음 나간 내용과 격구하는 방법과 그 장면, 가장 으뜸인 이성계의 격구실력과 그 활약상, 백성들의 호응도 등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26조

1960년 9월 26일. 같은 해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간 토론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다. 텔레비전이 미국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트루먼의 2차 대선 수습과 관련된 1947년 10월 2일의 TV연설이 시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미국의 어지간한 가정이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시절의 최초보다는, 미국 유권자의 1/3이 시청했던, 그리하여 1960년 선거의 향배를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1960년의 대선 후보 TV 토론을 기억한다.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존 F. 케네디와 〈현직 부통령〉 리처드 닉슨 간의 빅매치가 케네디의 최종 승으로 일단락 지어진 데에는 그가 TV를 통해 젊고 건강하고 유연하며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 주는 데 성공했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실 언변이나 화술로 따지자면 닉슨도 크게 뒤처지는 인물은 아니었다. 순발력도 있었다. 아이젠하워와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였던 닉슨이 (당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195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휩싸였을 때, 닉슨은 TV에 나와 해명 연설을 했다. "Dana Smith라는 후원자로부터 정치 후원금 1만 8000달러를 받았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겠다. 하지만 이 자금의 단돈 1센트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공여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으며, 비밀로 조성한 기금이 아니다. 다

만 선거 후에 선물로 받은 작은 코커 스페니얼 강아지가 한마리가 있다. 마땅히 돌려줘야 하지만, 딸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지 못했다." 가족과 강아지를 동원한 닉슨의 감성연설은 뇌물 수수 의혹으로부터 닉슨이 무탈히 살아남게 한 큰 힘이 되었다. 어쨌거나 닉슨은 TV 방송권을 사는데는 7만 5천불을 썼다고 한다.

1960년은 그러나 1952년의 "체커스 연설"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가정에 TV가 공급되어 있던 시기다. 그런데 닉슨은 TV 토론을 앞두고 무릎에 부상을 당해 수술을 한 뒤 회복 중인 상태인이라 뭔가 불편한 표정을 계속해서 연출했다. 게다가 적절한 의상을 선택하지 못해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서 땀을 뻘 흘리기도 했다. 케네디는 화면으로 비쳐질 비주얼에도 치밀하게 신경을 쓴 데다가, 부자집 아들로 태어나 엘리트 교육만 밟아오면서 몸에 밴 세련된 매너라는 자산이 스튜디오에서 크게 빛을 발했다. TV의 주 시청자인 젊은 세대는 케네디에게, 같은 연설을 라디오로 시청한 비교적 높은 연령대는 닉슨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고 한다.

60년 선거의 유권자 표 차이는 49.5%대 49.7%로 고작 0.2%에 불과했던 초점전의 선거였으니 (물론 훗날 1968년과 1972년 선거에서 대권을 거머쥐게 되지만), 닉슨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였다.

흥미롭게도 1971년 미국의 투표 가능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수정 헌법 26조를 비롯한 대통령 이 닉슨이었다. 그리고 투표 연령과 관련된 개헌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미국사를 통털어 투표 자격과 관련된 개헌은 총 세 차례 "미국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여부(노예)가 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 예속상태(노예)를 바탕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15조 (1870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19조 (1920년), 그리고 투표 연령 제한을 종전의 21세에서 18세로 낮춘 수정헌법 26조 (1971)이다. 오늘날 정신이 온전한 그 누구도 여성 혹은 유색인종의 예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어린 애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전히 플로리다, 켄터키, 유타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수정헌법 26조에 대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수정헌법 26조가 등장한 데에는, 그리고 그것이 닉슨 재임기였던 까닭은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작용했다. 2차대전 시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최소 징집 가능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자 "전쟁에 나가기에 충분한 나이라면, 투표하기에 충분한 나이 Old enough to fight, old enough to vote"라는 슬로건 하에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

기 시작했다. 베트남전 확전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했고, 그 중에서도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이들은 상당수였다. 결국 상, 하원과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으며 26번째 수정헌법이 통과했다.

18세라는 연령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만큼 충분히 성숙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사실 없다. 하지만 21세 이상만 투표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해서!)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혹은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18세 이상이 투표하는 나라보다 더 나은지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충분히) 어른도 아닌 그렇게 (더 이상) 아이다 아닌" 그들의 판단과 시각이 누가 봐도 성인 이들에 비추어 덜 성숙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얼마 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17세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났을 때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세계를 무장시키는 대신 책과 선생님을 보내라"고 말했다. 중국 주도하의 독단적인 홍콩 행정장관 선거방식에 반발하여 거리로 나와 경찰의 물대포 진압을 우산으로 일명 우산혁명의 주역도 젊은 학생들이었다. 이 세대, 투표권은 차치하더라도, 발언의 자유가 억압되면 안되는 이유들이라고 해 두자.

15TH ANNIVERSARY REUNION CONCERT



Newark, New Jersey

SUN. NOVEMBER 9, 2014 8PM PRUDENTIAL CENTER

Los Angeles

FRI. NOVEMBER 7, 2014 8PM STAPLES CENTER

뉴저지 뉴왁 공연 | **교차로** 뉴욕 교차로 신문사
티켓 판매처 | **Tel. 718-460-0114**

티켓 가격 \$54.75 | \$74.75 | \$94.75 | \$124.75 | \$154.75 | \$184.75 | \$204.75

주최



주관



후원



특별후원



연출

SHOW DIRECTOR KOREA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청소년의 자존감이 자존심보다 중요한 이유” (올바른 성교육 VI, 사춘기 여아 13세-18세)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청소년의 자아는 어린아이로 남고 싶은 미숙한 여아와 성숙한 여성으로 변하고 싶은 양가적인 감정으로 갈등한다. 청소년의 소녀들은 자신의 신체의 여성화의 변화가 더 느껴질수록, 이 양가적인 감정은 더 심해질 수 있다. 부모의 사랑으로 만족했던 아동시기와 달리, 다른 이성에게 느껴지는 에로스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에로틱한 감정은 이상화된 대상(영화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선생님)일수도 있고, 진짜 대상을 통해 느낄 수도 있다.

만약 청소년 여아가 처음으로 실제적인 이성을 통해 황홀하고 감미로운 사랑의 감정에 휩싸인다면 그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부모라는 대상을 벗어나 새로운 대상을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부모는 혹시 “내 딸이 나쁜 남자아이를 만나 성대상화가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에 간섭하지만, 간섭을 할수록 청소년은 “이제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며 더욱 반항을 한다. 부모와 청소년의 갈등이 심각하게 시작되는 것이다.

청소년이 여성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 양가적 감정의 갈등이 훨씬 덜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자존감’ 을 더욱 키워갈 수 있다. 반면, 자신이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화’ 의 욕구를 느끼기보다 자신의 몸과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대중매체든 가족이나 친구들의 다른 요인이든)에 더욱 민감한 경향을 갖게 된다면 ‘자존심’ 으로 자신의 양가적 감정 갈등을 방어하려 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쉽다.

생의 환경을 어디에 맞추어 사느냐의 선택이다. 얼마 전만해도 여성의 존재감은 사회에서 이룩한 성과보다 ‘마법의 성 안’ 에서 보여주는 남편의 사랑, 지위를 통해 결정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이 평등화로 인해 여성 활

동이 활성화되면서, ‘마법의 성 안에서’ 만’ 의 여성의 존재감이 점점 더 힘을 잃어 가고 있다. 다음 세대로 전이 될수록 여성의 존재감은 ‘마법의 성’ 의 안과 밖도 자유롭게 병행하는 환경으로 변화하리라 본다.

자존심은 다른 이들과 비교와 경쟁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지키려 하는 면이 있다.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타인에게 의존된 내면의 세계이다. 그러함으로 ‘마법의 성’ 안에서의 여성의 자존감은 남편에게 의존해서 오는 자존심과 자신보다 가정을 보살피는 희생에서 파생되어질 수 있다.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거나 남편이 건네주는 따뜻한 말에 마음이 녹아 들며 행복해질 수 있다. 반면 남편의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아 불행해지기도 한다. 가족에게 의존된 자존감이 ‘마법의 성’ 밖을 나가면, 자존심으로 변화하는 자존감이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의 환경이 그리 크지 않아 자존심 안에 자존감이 있다.

현 사회는 마법의 성의 안과 밖을 오가는 생의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한다. 즉, ‘양성적 성 역할’ 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한 잘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느냐의 멀티 테스트의 ‘자존감’ 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외모지상주의 루키즘과 성대상화의 성상품화의 현혹에서 벗어나, 여성화의 아름다움을 자기 안에서 볼 수 있게 부모는 도와주어야 한다. 자존심을 살려준다고 청소년이 원하는 때마다 비싼 옷을 사준다거나 신체의 결함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또한, 매스 미디어의 경험을 통해, 연예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 하여, 내면화된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며 ‘수치감’ 과 ‘열등감’ 을 갖고 있다면, 부모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자신

의 몸을 연예인의 몸과 행동으로 투사시키는 것을 진술한 대화로 막아주어야 한다. 매스 미디어의 영향의 신체적 자각은 여아의 신체 존중감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이런 정서를 Hart 등(1989)은 ‘사회적 체격불안’ 이라 명명하였다. 사회적 체격불안은 신체에 대한 대인관계적인 평가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평가될 때 생기는 사회적 신체정서이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여 느끼는 신체만족도나 신체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신체정서와 관련이 있지만, 타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다르기도 하다(Hart et al, 1989). Hart는 사회적 체격불안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다고 주장하였는데, 장진우와 손원일(2004)의 남녀 중학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안성을 색시한 표정, 화장, 옷차림으로 감추려 한다면 더욱 ‘성대상화’ 에 주입될 것이고 자신의 신체를 존중할 줄 아는 ‘자존감’ 이 상실되는 것이다. 외적, 신체적 자신감을 타인에게 사랑 받는 열쇠로 믿게 되고 내면화된다면, 공부를 잘해도, 얼굴이 예뻐도 항상 가슴속 깊숙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지닐 수 있다. ‘속’ 보다는 ‘겉’ 의 화려함으로 완벽주의의 ‘슈퍼우먼’ 이 되려 할 수 있다. 슈퍼우먼 이상형의 성 역할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서 섭식장애 증상은 더 많이 나타나게 한다고 한다(Collins, 1988).

슈퍼우먼의 자존심은 자신을 ‘자아 케이지(Ego Cage)에 넣기에 숨이 막혀오는 것이다. 능력 있고 창의력도 있는 똑똑한 여아가 ‘자존감’ 을 키울 수 있도록 이고 케이지(Ego Cage)를 풀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여자상에 금이 갈까 두려워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러한 여아에게 슈퍼우먼의 이상화를 은

연중 요구하고 있다면, 이제 그 케이지(Cage)의 문을 열어주기를 권한다. 간섭과 과보호는 ‘자존감’ 을 갖는데 절대적인 악영향이 있다.

린지가 테라피 요청을 하였다.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레지던트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인데도 항상 자신의 진료에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없는 것을 남이 알까, 항상 자신을 도도한 모습으로 포장했다. 정말 어디에 놓아도 손색이 없는 여사인 린지는 단 한번도 남친을 사귀지도 않았다. 왜냐고 물으니 자신은 낯선하지도 않고, 성적인 매력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 약간 통통하기는 했지만, 귀엽고 친근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린지는 ‘슈퍼우먼’ 의 이상화에 자신을 비추어, 내면 깊이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온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엄격했고, 그녀의 여성화를 억제하며, 자존심이 강한 영원한 ‘소녀’ 의 딸로 고착시키려 했다. 린지의 아버지는 린지를 억지로 사랑스런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었지만, 자유롭게 못했고 고정되어 있었으며 환경이 작았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을 주는 관계는 ‘자존감’ 을 알게 한다. 이런 자존감을 갖게 되면 저절로 사랑스러운 여성화가 일어난다. 사춘기를 겪는 여아의 자존감의 형성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이성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겉’ 의 아름다움이 아닌 ‘안’ 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숙은 나쁜 남자보다 좋은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한다. 좋은 남자는 올바른 성을 같이 누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음 칼럼을 통해, 아버지의 이상화가 어떻게 여아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올바른 성교육을 이야기 한다.

“보스톤엔 보스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31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1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전화하세요



뉴잉글랜드 청년들의 영적각성과 부흥을 위한 집회

ReNEW 2014 “함께 걷는 사람들”



ReNEW 2014 “함께 걷는 사람들”

11월 27일-29일(Thanksgiving Holidays) 까지 열린다.

2013년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 New England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40여개 교회에 속한 45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ReNEW 집회가 올해도 개최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서 교회와 제자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풀어어나가는 은혜의 자리로 채워질 예정이다.

‘Revive the New England Wave’ (뉴잉글랜드에 부흥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자)는 비전 아래 매년 진행되고 있는 ReNEW 집회는 19세기 Williams College에서 일어난 ‘건초더미 기도운동’과 그로 인해 촉발되었던 ‘학생선교운동’을 그 정신으로 하는 집회이다. ReNEW 2014를 준비하고 있는 성보영 목사(진행총무)는 “이번 ReNEW는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였던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기본 정신을 되새기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12 Steps 기도운동’을 통해 이번 ReNEW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12 Steps 기도운동’은 ReNEW 2014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은 매주 주일 저녁 Boston 지역에 거점 교회들을 방문하여 드려지는 기도모임이다. 지난 10여회의 기도모임을 통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보스톤 온누리교회, 시온성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Three Times 교회 등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한 ‘12 Steps 기도모임’은 마지막 집회 장소인 Double Tree Hotel에 닿을 때 까지 허락하는 한 더 많은 교회들을 찾아 다니며 기도모임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무적인 것은 ReNEW 내부의 영적 각성에서 비롯된 이와같은 헌신된 움직임은 곧 집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져 프로그램과 강사선정 등 여러 부분에서 ReNEW 집회를 한단계 더 성숙한 집회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점이다.

실례로 ReNEW 2014의 주제 “함께 걷는 사람들”은 자칫 개교회 주의 안에서 폐쇄적인 태도로 무한경쟁 할 수 있는 이민교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가감없이 지적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이며 동역자인 것을 다시 고백하며 경쟁이 아닌 화해와 연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는 점만 보아도 준비팀의 진지함을 읽어 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위해 용기를 불어넣는 자극적인 집회를 넘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대원 목사(예수전도단 설립자), 송병구 목사(LA 선한정지교회), 김도현 교수(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 등 최고의 강사진을 초청하여 말씀과 성경강해를 강화하였고, 자신의 전공과 관심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Task 모임을 신설하였다. 특별히 이창호 전도사(교육총무)는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강사진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세미나 부분을 역시 주목해 달라.”고 말한다.

세미나 강사별 주제를 살펴보면,

Ellen Ross 사모 (오대원 목사 사모 - Spiritual Care), 민영기 목사(전 사랑의교회 대학부 담당 - 복음은 무엇인가?), 김도현 교수(귀남법적 성경연구), 김종원 목사 & 하신주 선교사 (자아상 회복), 백소영 교수(이화여대 기독교사회윤리학과 - 여성, 연애, 가정), 서명구 교수(메릴랜드대학 경영학과, CBAM 공동대표 - 학업과 신앙, 비즈니스), 최영환 대표(M-Tree-가치창출 패러다임), 이진민 (Emmanuel Gospel Center - 보스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이규준 선교사 (선교와 부르심), 김재원 아나운서 (스피킹 기술, 크리스천의 삶) 등 최고의 강사들이 3일간 매일 10여 가지의 다양한 주제들을 강의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ReNEW 2014는 지역 교회를 섬기는 다수의 찬양 인도자가 참여하여 교회 연합의 의미를 더하게 되며, 지역교회 연합 찬양팀과 함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 1대1 라이프코칭, 추수감사절 콘서트, 오픈 포럼 그리고 기도의 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

ReNEW 2014는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준비 중이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따로 마련된 조용한 방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집회 실황을 중계하는 Nursery Room을 운영하며, 3세 부터 12학년까지는 ReNEW Kids (유치부, 유년부), ReNEW Youth 등 연령대를 3개 그룹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의 신앙양육을 돕게 된다.

특히 모든 순서가 English로 진행되는 Youth ReNEW는 오랫동안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내적치유 등을 진행해 온 미주 INTO School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이를 위해 김종원 목사(INTO School 대표, 워싱턴 온누리교회 담임)와 하신주 선교사(INTO School 대표강사, 전 두란노 청소년 QT교재 편집장)가 주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ReNEW 진행총무를 맡고 있는 성보영 목사는 10월 19일 마감한 1차 등록 집

계결과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2차 등록기간에도 부부등록 할인, 신학생 할인, 통근등록(자녀가 있을 경우) 등의 다양한 등록/할인을 마련하였고, 공항 라이드, carpool 서비스도 준비할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NEW 집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ReNEW 홈페이지(www.renewusa.org)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하며, 11월 27일(목), 28일(금) 저녁 7:00부터 시작되는 저녁집회는 집회 공간이 허락할 경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할 예정이다.

집회문의: 성보영 목사(ReNEW 진행 총무), 617-678-5104, renewusa@gmail.com

등록문의: 등록팀 renewregister@gmail.com



2014 ReNEW

Revive the New England Wave

www.renewusa.org

함께 걷는 사람들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벧전 2:21)

2014. 11/27 Thur - 29 Sat 2박3일 Thanksgiving Holidays
@ DoubleTree by Hilton Hotel in Danvers, MA

Speakers



오대원 David Ross 목사,
Ellen Ross 서모
한미연합교회 담임목사



송병주 목사
LA 한인교회 (2차) 담임목사



김도연 교수
Colorado Christian University
ORU D.D.



민명기 목사
한미연합교회 담임목사
Calvin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



박소영 교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FLA (국제교사) 교육



서명구 교수
Univ. of Maryland
Management & Organization 학사
신학박사



최병환 대표
ReNEW-USA CEO



김재원 매니저
공공기관 매니저



김중원 목사
11th BIC School (BIC)
신학박사



허신주 선교사
11th BIC School (BIC) 부교장
미국에서 10년 이상 목회한 목회자

Program

	27(목)	28(금)	29(토)
06:30-07:30		새벽기도	
07:30-09:30	도착등록	조별모임	
09:30-11:30	Opening 메시지 오대원 목사	학생강연	학생강연
11:30 (15)	Orientation	성경강해 1 김도연 교수	성경강해 2 김도연 교수
11:30-01:00		정식식사	
11:30-01:00	세미나1	Forum (청년, 교회의 귀를 열어)	세미나3
02:30-3:30	체크인	Family Time (or Tasks 모임)	파송 메시지 오대원 목사
03:30-04:00	Thanksgiving Celebration (Special guests)	세미나2	ReNEW Festival (Fiesta/D)
04:15-05:30		정식식사	
05:30-07:00		저녁식사	
07:00-07:30	크리스천의 삶 박소영 교수	크리스천의 삶 서명구 교수	
07:30-10:30	저녁메시지1 송병주 목사	저녁메시지2 송병주 목사	
10:30-11:30	조별모임	P&P / 조별모임	

등록비안내

성인 1명 기준	1차 (1-10월)	2차 (1-12월)	3차 (현장등록)	동반자녀	
				0-2세	무료
4인 1실	\$ 199	\$ 229	\$ 269	3-4세	\$ 60
2인 1실	\$ 249	\$ 279	\$ 309	5-12세	\$ 120
1인 1실	\$ 339	\$ 369	\$ 399	13세 이상	\$ 199

ReNEW는 대학, 청년,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집회 기간중 0-2세 영아를 위한 Nursery 공간이 마련되며, 자녀들을 위한 Kids ReNEW와 Youth ReNEW도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문의 : renewregister@gmail.com
ReNEW 2014 함께 걷는 사람들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ReNEW Homepage를 참조해 주세요.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7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역사 : History〉

역사는 모든 분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역사는 학생들의 전공과 상관없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심지어 예술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중요한 바탕이 된다. 많은 미국 대학들이 교양 학부 중심교육(Liberal Arts Education)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 고등학교에서 미국 역사는 필수다. 그러나 나머지 사회과학에서는 어떤 과목 하나만 수강하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에 큰 무리가 없게 디자인 되어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유럽역사(European History) 과목을 수강하길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주된 생각들(Ideas)과 제도들(Institutions)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고, 다른 이질적인 사회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유럽 역사를 통해 자유와 노예, 식민지와 독립국,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법인과 정부규정,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다양한 사고들과 제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는 가능하면 미국역사, 유럽역사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더 공부하길 바란다. 즉 고등학교에서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을 공부하는 것 보다 오히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공부하길 강력히 추천한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면 대학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여 조금만 준비하면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제학, 심리학 등의 AP 과목을 수강하거나 심지어는 수강을 하지 않고 AP 시험 점수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대학들의 역사 과목 수강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많은 역사과목을 수강하면 할수록 복잡한 인간사(Human affairs)를 더욱 더 잘 인식하고, 다른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많은 역사 과목 수강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역사 과목의 수강으로는 세계사(World History, 9학년), 유럽사(European History, 10학년), 미국사(U.S History, 11학년) 또는 고대사(Ancient History, 9학년) 유럽사(European History, 10학년), 미국사(U.S History, 11학년) 등의 코스로 수강하면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12학년에 역사 관련 AP과목 수강을 추천한다.

〈수학: Mathematics〉

개별 학생들의 각기 다른 전공에 대한 흥미

와 상관없이 수학은 모든 학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단지 수학을 숫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언어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수학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 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학교에서 7학년 부터 12학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re-algebra(7th), Algebra1(8th), Geometry(9th), Algebra 2(10th), Pre-calculus(11th), AP Calculus(12th).

비록 수학과정이 위의 코스처럼 진행되어 지고, 11학년까지 AP과목이나 AP 시험 점수가 없다고 해서 하버드나 또는 다른 대학에 지원할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수학을 전공하지 않을 학생의 입장에서 오히려 지나치게 코스를 뛰어넘거나 도전적인 과목을 저학년 때부터 수강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학년 시기의 아카데미 코스 선정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강 신청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학에서는 함수(Function), 그래프, 테이블 등이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 코스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썸머나 시험을 통해 수학 코스를 뛰어넘는(Skip)것을 절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수학 코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 Algebra 2 (9th), (H)Pre-calculus(10th), AP calculus BC(11th), Multivariable calculus / Linear algebra(12th).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가능하면 너무 빨리 Calculus 코스를 수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제공되는 자연과학 및 사회 과학 분야의 코스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Calculus를 사용하는 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훨씬 다양한 종류의 함수 관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한국 학생들의 수학 코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학적 원리와 응용에 포커스 맞춰진 것보다 문제 풀이를 통한 고득점에 집중되어 있다. 즉 SAT 2, AP점수 만점에만 관심이 있다보니 정작 학교 수학점수는 그다지 높게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학년 때부터 너무 어려운 수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고학년 때 너무 힘든 수학을 수강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수학이 고학년 때 오히려 타과목보다 더 힘든 과목이 되고 만다. 너무 과도하게 앞서가는 것보다 필자가 제시한 코스로 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수학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다음 호에 계속)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은 물론 이 칼럼을 읽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독자분들이 종종 있다. 감사하게도, 필자의 전문성을 믿고 미국 대학교 입시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학생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의견을 얻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대학 입시에 대한 문의를 주실 때 학부모님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학생들의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르더라도 말이다. 예를 들어, '보통',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당연하게', '다른 학생들을 보면' 등 입시에 어떤 왕도가 있는 듯한 표현들을 듣다 보면,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을 배제한 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거나 모든 대학 입시에 통하는 마법의 공식, 입시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물론, 잘 모르시거나 주위에서 들은 잘못된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으시

대학 입시에 대한 오해들

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학 입시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한번 살펴보자.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하면, 그만큼 좋은 학교에 합격할 기회도 많아진다? 사실, 어느 한 학생이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학생이라는 증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즉, 수많은 학교에서 사용되는 비슷비슷한 원서와 에세이 답변을 통해 학교와 학생이 꼭 맞는, 좋은 'fit'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힘들다. 몇 장 되지 않는 지원서를 통해, 학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당 학교에서 장점으로 내세우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열정 또한 함께 내비쳐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추구하는 미래와 맞아떨어지는 학교들을 거르고 거르다 보면 대략 10-12개 학교들로 지원 리스트가 압축되기 마련이다. 필자의 지난 칼럼 〈현실적인 대학 리스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학교의 명성이나 순위를 쫓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빨리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실질적으로 Early decision 이나 Early action(조기 지원)의 합격률이 Regular admission(정시 지원)의 합격률보다 높은 학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의 경우 조기로 지원하는

학생들과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다른 것 또한 사실이다. 즉,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비교 대상이 다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어떤 학교들은 조기 지원 학생들과 정시 지원 학생들을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단순히 지원 학생 대비 합격 통지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을 본다면 조기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숫자가 내게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잘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Early decision이나 Restrictive early action의 경우, 여러 제약이 함께 동반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운동, 음악, 봉사 활동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학생의 내신 성적과 표준 시험 점수를 제외한 그 어떤 요소도 모든 대학교, 모든 학생에게 통용되는 객관적인 공식을 통해 수치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과외 활동이나 이력서에 어떤 특정한 이력이 포함되거나 제외되었다고 해도 정해진 법칙에 따라 가산점을 받거나 점수가 깎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졸업 요건인 봉사 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12학년에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잠깐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대학교 입시 사정관들이 해당 학생을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비어 보이는 이력서에 단순히 한 줄 더 추가하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활동은

전혀 학생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교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균형 잡힌(well-rounded) 학생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교과목 선택과 좋은 내신 성적이 동반된다면, 철저하고 깊이 있는 과외 활동 이력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은, 대학 입시 상황은 변화한다. 내후년이면 벌써 새로운 SAT가 적용되고, 대학교들이 올해 내세우는 입시 정책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실제로 10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기 지원 제도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켰다. 시시각각 변하는 입시 동향을 파악해야 하고,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정보도 하루 아침에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어차피 미국 대학 입시에서 '일반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면서, 어떻게 내가 특별하고 눈에 띄는 학생이 될 수 있을까?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